

제1장 서귀포 동부

(舊 西歸邑)



◎ 서귀포(西歸浦)

서귀포 동부(구 서귀읍) 지역의 동쪽은 남원읍 하례리와 접하고 서쪽은 강정동과 경계를 이루며 남쪽은 바다이고 북쪽은 제주시이다.

그 사이에 효돈천, 보목천, 동홍천, 연외천 등이 산간에서 발원하여 남쪽바다로 흘러간다. 따라서 선사시대에 사람들이 거주했던 삶의 공간 역시 이들 하천(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를 살펴보면

0. 연외천 동쪽 서귀동 795번지 서귀동 바위 그늘 집 자리에서 1만여년전의 구석기 시대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었다.

0. 법환동, 보목동 해안에서는 고인돌이 발견되었다. 이는 탐라국 형성기 때인 BC200 ~ AD200년 어간의 유적들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서귀포 동부지역에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정착했던 것으로 보아진다.¹⁾

그리고 서귀포 동부 지역은 서불과차(徐市過此)설이 진원지이기도 하다. 즉 서귀포의 유래는 정방폭포의 절벽에 새겨진 서불과차(徐市過此)의 마애명에서 유래한다는 설이다.

史記 秦始皇 本紀 二十八年條에 “既已 齊人徐市等 上書言海中有 三神山 名 사기 진시황 본기 이십팔년조 기사 제인서시등 상서언해중유 삼신산 명曰蓬萊, 萬丈, 瀛州 仙人居之 請得齊戒 與童男女 求之於是 遣徐市發 童男女 崑崙, 만장, 영주 선인거지 청득제계 여동남여 구지어시 견서시발 동남여 數千人 入海求仙人.....이라는 기록이 있다.

수천인 입해구선인

이는 서시가 진시황에게 글을 올렸는데 “동남여와 함께 바다를 항행하여 봉래, 만장, 영주의 세 신산에 가서 신선(神仙)과 같이 늙지 않고 죽지도 않는 약을 구

1) 제주도지 제2권 P. 51. 제주도 2006
서귀포시지 상권 P. 328, P. 357~368. 2001

해다 폐하에게 바치고자 합니다.”

시황제(始皇帝)는 이를 허락하고 동남동녀 삼천명과 여러 가지 곡식과 공인(工人)들을 딸려 바다 건너 보냈다.

이때 이들 일행이 영주산의 불노초(不老草)를 캐려고 제주도에 들렀을 때 삼인이 잔류자가 생겼는데 이들이 삼성인(三姓人)이 되었다는 주장이 ‘서시잔류설(徐市殘留設)’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시일행이 정방폭포 절벽에 ‘서시과처(徐市過處)’의 마애명을 새겨두고 서쪽으로 돌아갔다는 전설에서 유래한다는 설과 또한 불교의 서방정토(西方淨土, 극락)의 이상향을 추구한다는 뜻에서 서귀포(西歸浦)가 유래했다는 설도 있다.²⁾

이러한 선사시대(先史時代 AD 1년 이전)나 원사시대(原史時代 AD1년 ~ AD300년)를 지나 우리나라 문헌상에 서귀포 동부지역이 등장하는 것은 고려조에 들어와서이다.

1300년(충렬왕 26)에 제주목을 중심으로 하고 제주 전 지역을 동.서도현(東.西道縣)으로 나누어 현을 설치하였다. 그 서도현(西道縣)에는 귀일(貴日), 고내(高內), 애월(涯月), 광지(郭支), 명월(明月), 차귀(遮歸), 산방(山房), 예래(猊來), 홍로(烘爐)현을 설치했으나 이는 제주목의 속현이었고 그중 홍로현이 오늘날 서귀포 동부지역인 것이다.

1416년(태종 16)에 와서 동.서도의 거리가 너무 멀어 외적 방비에 어려움이 많다는 도안무사(都按撫使) 오식(吳湜)과 전판관(前判官)인 장합(張合)이 조정에 건의하여 한라산 남쪽 200리 땅을 양분하여 東을 ‘정의현(旌義縣)’ 西를 ‘대정현(大靜縣)’이라 하여 각각 현감을 두어 통치하게 하였으며 정의현에는 토산현(兎山縣) 호아현(狐兒縣), 홍로현(烘爐縣)을 예속시켰으니 서귀포 동부지역은 ‘정의현’ 관할이 되었다.

1439년(세종 21) 2월에 왜구의 내침을 방어하기 위하여 안무사 한승순(韓承舜)이 조정에 건의하여 홍로천(烘爐川)위에 서귀진(西歸鎭)을 설치하였고 1590년(선

2) 우리고자의 설촌유래(1986. 2. 25) 서귀포시교육청

조 23) 목사 이옥(李沃)에 의하여 서귀동 해안변으로 옮겨졌다.

서귀진이 어떤 이유로 홍로천 위에서 해안변으로 옮겨지게 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왜선의 방비와 적들을 감시하기가 비교적 쉽고 또한 서귀포가 문섬, 새섬으로 둘러 쌓여 천연적인 포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박들을 감추기 쉬운 해안변(서귀동 717번지 : 재일교회 주변)으로 택하게 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1609년(광해군 1)에 관관 김치(金緻)가 동.서방리 약정(約正)을 설치하였는데 정의현에는 ‘좌면, 중면, 우면’을 대정현에는 ‘좌면, 우면’을 두었으며 서귀포 동부(구 서귀읍)는 정의현 우면에 속하게 되었다.

『탐라순역도』에는 옛 서귀 지역을 옛 서귀(舊西歸, 旧西), 새 ‘서귀’ 지역을 서귀(西皈)로 표기하고 있다.

『제주읍지』(정의현지, 방리, 우면)에 ‘서귀마을은 정의현 관문에서 서쪽으로 70리의 거리에 있다. 민호는 49호 남자는 136명 여자는 156명이다.’³⁾

『삼군호구가간총책』(정의군, 우면)에 “풍덕의 연가는 92호이다. 남자는 187명 여자 223명을 합하여 410명이고 초가는 275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⁴⁾

서귀포는 일찍부터 ‘서곶개’라 불리왔고 한자로 ‘西歸浦’라 표기해 왔으며 서귀진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면서 나중에 서귀리(서귀마을)라 해오다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한때 ‘풍덕리(豊德里)’라 하였다가 다시 ‘서귀리’라 하였다고 한다.

1789년(정조. 13) ‘호구총수’에는 정의현 7면 37리중 서귀포 동부(구 서귀읍)에는 2면(東烘爐面, 西烘爐面) 10리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⁵⁾

이로보아 이때까지만 하여도 서귀포는 빈농과 어민이 주로 거주하던 해촌으로

3) 제주읍지(정의현지, 방리, 우면)

“西歸里 自官門西距七十里 民戶 四十九 男 一百三十六 女 一百五十六”

4) 삼군호구가간총책(정의군, 우면)

“豊德 烟家 九十二戶 男 一百八十七 女 二百二十三 合 四百十九 草家 二百七十五間”

5) 호구총수(1789, 정조 13 추정) 책 6편 전라도편에 “旌義 面 七 里 三十七.....”

「免山面, 狐村面,.....東烘爐面(上孝敦里, 中孝敦里, 下孝敦里, 甫木里, 吐坪里)
西烘爐面(東烘爐里, 西烘爐里, 西歸里, 好近里, 法還里)」

주로 고기잡이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농사도 짓는 겸업형태를 취하며 생활했던 가난한 어촌마을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서귀포가 산남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일제시 일주도로 개통과 제주도(濟州島)의 지청이 개설되고 면사무소, 경찰주재소 등 공공기관이 세워지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귀포 동부 지역내 마을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⁶⁾

0. 1789년(정조 13) 호구총수

東烘爐面 : 上孝敦里, 中孝敦里, 下孝敦里, 甫木里, 吐坪里

西烘爐面 : 東烘爐里, 西烘爐里, 西歸里, 好近里, 法還里

0. 18세기말 제주읍지의 삼읍 방리조

右面 : 上孝敦里, 中孝敦里, 下孝敦里, 甫木里, 吐坪里, 東烘爐里, 西烘爐里

西歸里, 好近里, 法還里

0. 1872년(고종 9) 제주삼읍 전도

右面 : 西歸里, 法還里, 好近里, 西烘里, 東烘里, 吐坪里, 上孝里, 新孝里

中孝里, 下孝里, 甫木里

0. 1899년(광무 3) 정의군읍지

右面 : 上孝里, 中孝里, 下孝里, 新孝里, 吐坪里, 甫木里, 東烘里, 西烘里

豊德里, 舊好近里, 新好近里, 法還里

0. 1899년(광무 3) 정의현지

右面 : 上孝敦里, 中孝敦里, 下孝敦里, 甫木里, 吐坪里, 東烘爐里, 西烘爐里

西歸里, 好近里, 法還里

0. 1904년(광무 8) 제주목의 삼군호구가간총책

右面 : 上孝里, 中孝里, 新孝里, 下孝里, 甫木里, 吐坪里, 東烘里, 西烘里

好近里, 豊德里, 法還里

0. 1914년 행정구역 폐합때의 변천

6) 제주도 마을이름의 종합적 연구 1. P 61~83
오창명.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7

右面：上孝里，下孝里，新孝里，甫木里，吐坪里，東烘里，西烘里，西歸里
好近里，西好里，法還里

위의 마을 명칭은 오늘날의 법정동과 일치한다.

그후 우면이 된후 현재까지의 연혁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0. 1906년(광무 10) 9월 21일 우면 ‘풍헌’을 우면 ‘면장’으로 개칭하였고 약정(約正), 직월(直月)을 폐지하고 영수원(領收員), 서기(書記)를 두었다.
0. 1910년 10월 공포된 면에 관한 규정에 따라 면장을 판임관대우 국가 관리로 임용하였고 그 사무소를 동흥리에 개설하였다.
0. 1914년 3월 1일 정의.대정 양군을 폐하여 ‘제주군’에 통합되었으며 서귀포는 ‘전라남도 제주군 우면’이 되었다.
0. 1914년 행정구역 폐합때 우면 상호리 일부가 서중면 하례리에 병합되었다.
0. 1915년 5월 1일 島制 실시로 ‘전라남도 제주도(濟州島) 우면’이 되었다.
0. 1912~1918년까지 해안변을 따라 일주도로 개설로 행정, 경제, 교육의 중심기능은 일주도로변으로 점차 옮겨졌다.
0. 1916년 濟州島의 지칭을 서귀리에 개설함으로써 면사무소도 이곳으로 옮겨왔고 더불어 경찰관 주재소와 등기소, 우편소, 학교등이 속속 이곳에 세워지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소수 주민만이 거주하던 한촌인 서귀리가 이때를 시발로 일약 산남의 거점으로 등장하였다.
0. 1917년 해안을 연결하는 일주도로가 개통되었다.
0. 1929년 자동차 교통의 정류장 역할을 하여 육상을 통한 여객과 물자의 정기적 소통이 이루어졌다.
0. 1931년 해상교통의 거점으로서 항만시설을 갖추어 해륙교통의 요충적 성격을 안고 신흥 취락으로 번영하기에 이르러 교육기능과 산업시설이 추가되는 과정에서 소지역 중심지로 성장하여 오늘의 도시화를 가져오게 하는 토대를 이루었다.

- 0. 1935년 4월 1일 우면을 ‘서귀면’으로 개칭하였다.
- 0. 1946년 8월 1일 도제(道制)실시에 따라 2군제(북제주군, 남제주군)의 시행과정에서 서귀포는 군청을 비롯하여 경찰서, 즉결심판소, 교육청, 중학교 등을 뒀으므로 산남지방의 행정뿐 아니라 치안, 사법, 교육 기능의 실질적으로 복합된 지역중심으로 그 기초를 확립하여 갔으며 행정적으로는 제주도 남제주군 ‘서귀면’이 되었다.
- 0. 1948년 4.3사건으로 내륙촌락에는 공비도벌과 관련하여 마을이 소개되므로 거주 공간의 중심축은 해안지역으로 이동되었고 서귀포 지역은 전입 격증과 일주도로 개통으로 또 한번의 번영을 맞는 계기가 되었다.
- 0. 1950년 6.25사변으로 인한 피난민의 유입은 기존 거주 공간을 포화상태로 만들어 구릉면(소위 뒷병디)으로 취락을 확장하였고 일주도로를 배후지로 우회시킴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이전을 단행하였다.
- 0. 1952년 군청과 경찰서의 이전을 시작으로 남주고와 서귀농고의 이전 방송국(중계소)과 공설시장이 세워졌다.
- 0. 1956년 7월 1일 서귀면이 ‘서귀읍’으로 승격되었다.
- 0. 1963년 10월 11일 한라산 횡단도로의 개통은 제주시와 서귀포의 이동시간을 단축시켜 1일 생활권을 활성화 하므로써 또 한번의 변화를 가져왔다.
- 0. 1965년에 시작된 공공기관(군청, 경찰서, 등기소 등)의 제2차 이동은 보다 배후지로 시가지를 확산시킴과 동시에 현재의 도시 윤곽을 완성시키면서 제주도의 2대 도시권으로 부상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 0. 1981년 7월 1일에는 서귀읍이 중문면과 통합하여 ‘서귀포시’로 승격되어 종전의 리(里)가 동(洞)이 되었으며 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영천, 동홍, 서홍, 대륜, 대천, 중문, 예래 등 12개동을 관장하게 되었다.
- 0.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특별법 제 3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행정시)’가 되었다.
- 0. 2009년 11월 30일 현재 서귀포 동부지역(구 서귀읍)의 면적은 109.0km²에 인구는 64,110명이며 지역내에 법정동이 11개이고 행정동은 9개 자연마을은

20개이다. 그리고 도서(島嶼)로는 보목동의 삼도(森島), 서귀동의 문섬(蚊島), 새섬(鳥島), 법환동의 범섬(虎島)이다.

<서귀포 동부지역의 행정동과 법정동>

행 정 동	법 정 동
송 산 동	서귀동, 보목동
정 방 동	서귀동
중 양 동	서귀동
천 지 동	서귀동, 서홍동
효 돈 동	신효동, 하효동
영 천 동	토평동, 상호동
동 홍 동	동홍동
서 홍 동	서홍동
대 륜 동	법환동, 서호동, 호근동

참고문헌. 우리고장의 설촌유래(1986. 2. 25) 서귀포시 교육청
 구 서귀포시지(1988. 2. 26) 서귀포시
 서귀포시지명유래집(1999. 4. 28) 서귀포시
 서귀포시지(2001. 7. 1) 서귀포시
 제주도지(2006.) 제주도

◎ 서귀동의 설촌유래

서귀포는 제주도의 남부 중앙에 위치하며 수리적 위치는 북위 33°13'21"~33°21'40", 동경 126°22'12"~126°37'03"으로 한국 최남단에 소재하고 있다. 서귀동은 중앙동, 정방동, 천지동, 송산동의 4개 행정동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서귀동의 동부가 중앙동에 해당한다.

서귀항을 중심으로 서귀동의 해안 일대는 동홍동, 토평동, 보목동과 통합되어 송산동으로 분리되어 있고 중앙동과 송산동 사이에 위치한 서귀동의 동부 일대는 정방동으로 분리되어 있고 서귀동의 서부일대는 서홍동의 일부와 통합되어 천지동을 이루며 서귀동의 외곽에 위치한 동홍동과 서홍동은 송산동과 천지동에 편입된 일부 지역을 제외하여 동홍동과 서홍동으로 분리되어 있다.

서귀동은 고려시대부터 서귀포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귀포는 고려시대와 조선초 까지도 홍로현 포구로 이용되었고 1590년(선조 23)목사 이옥(李沃)에 의해 홍로천 위에 있던 서귀진(西歸鎭)을 서귀리로 옮겨 진성(鎭城)을 쌓고 방호소와 수전소로 이용되면서 조방장을 비롯하여 치총 1명 성정군(城丁軍) 133명 방군 75명 주첨방군 9명 서기 7명 방포수 1명 궁인 3명 시인 7명이나 상주하고 있었던 사실로 보아⁷⁾

이들은 서리와 병졸의 신분을 가졌다 해도 토착민의 주축요소로 등장하고 있음은 분명하며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면서 그 규모가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또 수전소로 이용 되었기 때문에 서귀포는 한때 ‘수전개’라 하였는데 한자로 수전포(水戰浦, 守戰浦)라고도 하였다.

그리고 확실한 연대는 추정할 수 없지만 지금의 서귀중학교 서쪽 이개집터(李哥一)일대에 李氏가 들어와 살았고 ‘솔동산’ 서쪽 (기상대 서쪽)에 朴氏가 동동내에 여산송씨(礪山宋氏)가 표선에서 이주해와 속칭 ‘구린세끼’에 정착하여 살면서 설촌이 되었다고 한다.

7) 정의현지(1899). “西歸鎭 在縣西七十里 助防將 一人 雉摠 一人 城丁軍 一百三十三名 防軍 七十五名 州添防軍 九名 書記 七名 防砲手 一名 弓人 三名 矢人 七名 鎭內有客舍 軍器倉庫....”

서귀포에 촌락이 늦게 형성된 것은 다음 두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 바다에 인접하여 여름철에 해수와 높은 습도 경작지의 협소 등 조건을 들 수가 있다.

둘째. 어업을 천시하는 경향에서 바닷가에 사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 등을 그 요인으로 들 수가 있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일본인 어부들 5세대가 어장확보를 위해 이주하여 왔는데 ‘내밭(내밖田 : 川外田)’ 지금의 천지연 입구 주차장 부근에 정착하였으며 또한 1910년까지만 해도 ‘솔동산’을 중심으로 부두에 이르기까지 20여호의 인가(人家)만이 형성될 정도로 매우 한적하였는데⁸⁾

1915년 5월 1일 도제(島制) 실시로 1916년에 서귀리에 서귀지청(西歸支廳)이 개설되고 지금의 동홍동 ‘굴왓’에 있었던 ‘면사무소(面事務所)’가 이곳으로 옮겨 오면서 인구가 급증하여 마을이 커졌다고 한다.

참고문헌. 우리고장의 설촌유래(1986. 2. 25) 서귀포시교육청
구 서귀포시지(1988. 2. 26) 서귀포시
서귀포시지명유래집(1999. 4. 28) 서귀포시
서귀포시지(2001. 7. 1) 서귀포시



8) 우리고장의 설촌유래(1986. 2. 25) 서귀포시교육청 P. 23 : 6~24

1. 중앙동

법률 제 3425호(1981. 4. 13공포)에 의해 서귀읍 일원과 중문면을 통합하여 서귀포시를 설치(1981. 7. 1)할 때 이루어진 12개동의 하나로 서귀동의 일부로 이루어진 동(옛 서귀 1.2리의 일부)으로 중앙은 서귀포 옛 시가지 중앙에 위치해 있다는 데서 유래한 것이다.



2. 천지동

법률 제 3425호에 의해 서귀읍 일원과 중문면을 통합하여 서귀포시를 설치할 때 이루어진 12개동의 하나로 서귀동(옛 서귀리)의 일부와 서흥동(남성리)의 일부를 통합하여 이루어진 동으로 천지동의 천지는 천지연과 천지연 폭포를 끼고 있다는 데서 유래한 것이다.



가. 남성리의 설촌유래

남성리는 서귀포 중심에서 약 2km 서남쪽에 위치한 삼매봉 바로 동쪽 지역에 있는 마을로서 옛날에는 ‘주엇벙디’ 또는 ‘젯벙디’라고 했으며 마을이 형성되면서 일제시대에 한자 차용표기로 주어동(走魚洞)이라고도 하였다.



그리고 남성리는 행정적으로 서홍리에 속해 각종 선거시 현 서귀북교까지 먼 거리를 걸어가는 선거를 했으니 그 불편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또한 태풍시 해안가로 떠 밀려온 모자반(속칭 : 물망)문제로 서로 차지하겠다고 서홍리 주민과 자주 다투어 1952년 4월 서귀면의회가 구성되자 전 리민들이 서홍리로부터 독립을 강력하게 건의하여 면의회 조례로 남성마을이 독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1953년 남성마을이 서홍리로부터 독립이 되자 마을 이름을 짓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마을 이름을 잘 짓는 것이 장래 마을이 발전하고 번창하며 잘 살 수 있다고 확신한 마을 어르신들은 몇 차례의 회의를 하며 논의한 결과 학식과 덕망이 높은 서호리 ‘허훈장’에 의뢰하여 마을 이름을 짓는 것이 좋다고 하여 허훈장을 찾아가 그 간의 사정을 말하고 마을 이름을 지어 주기를 간청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과정을 거쳐 ‘허훈장’에 의해 마을 이름이 ‘남성리(南城里)’로 명명되자 마을에서는 큰 잔치를 벌였다고 한다.(당시 초대이장 김찬민)

1966년부터 다시 ‘서홍2리’라 하여 ‘서홍동’에 속하였으나 1981년 7월 1일 서귀포시 승격후에 ‘천지동’ 소속이 되었다.

남성리가 언제 설촌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문헌이 없어 잘 알 수가 없으나 년

로하신 어르신들의 구전과 증언에 의하면 설촌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고 하며 1890년대부터 1900년대초에 몇 분이 본 마을로 들어 왔다고 하는데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강자옥’씨와 ‘강위정’씨가 제일 먼저 입향하였다고 하며 다음 ‘현인수’씨가 서호리에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송우백’씨가 서귀포 동동네에서 ‘고화춘’씨가 부친과 함께 당모루에서 ‘고사연’씨가 대정읍 영락리에서 입향하여 설촌되었다고 한다.

1930년경에는 ‘현응학(玄應鶴)’씨가 들어왔고 10년후인 1940년경에 서호리에서 ‘현재준(玄在俊)’씨가 들어왔으며 1945년경 ‘김찬민’씨가 염돈에서 입향하였다. 1948년 4.3사건이 일어나면서 ‘하느’경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폭도들의 습격에 의해 집이 불타고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등 살 수가 없게 된 이들은 일부는 서귀포로 일부는 본 남성리로 이주해와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도 하였는데 그 후 許氏, 吳氏, 李氏, 金氏, 朴氏, 羅氏, 左氏 등 많은 성씨들이 1950년대 중반부터 본 마을에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많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쌀이 귀한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먹을 것이 없어 식량부족이 매년 연속되고 ‘보리고개’ 등 우리네 살림살이가 가난을 면치 못하는 당시 상황에서 논 농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자연환경이 매우 좋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고 하겠으며 본 남성리는 천지연과 삼매봉을 끼고 있어 풍광이 좋고 땅도 비옥하여 사람 살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된다.

마을 입구에 시공원(詩公園), 기당문예회관과 도서관이 있어 문화예술의 요람이 되기도 하고 서귀포 시민공원인 삼매봉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 운동을 하고 산책을 하며 여가를 즐기는 모습에서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팔각정’에 올라 바라보는 한라산과 서귀포 앞 바다의 정경은 너무 아름다워 지상낙원이 따로 없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래서 옛 선인들도 여기서 바라보는 밤 하늘의 ‘노인성’ 별자리를 보며 찬사를 하지 않았던가?

이와같이 자연환경과 풍광이 아주 빼어난 본 마을은 현재 100여가구에 500여명의 인구를 가진 전원 마을로 살기 좋은 곳이다.

※참고문헌. 서귀포지명유래집(1999. 4. 28) 서귀포시
서귀포시지(2001. 7. 1) 서귀포시

3. 정방동

법률 제 3425호에 의해 서귀읍 일원과 중문면을 통합하여 서귀포시를 설치할 때 이루어진 12개 동의 하나로 서귀동의 일부(옛 서귀1.2리의 일부)로 이루어진 동으로 정방폭포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동이라는에서 ‘정방동’이라 하였다.



4. 송산동

법률 제 3425호에 의해 서귀읍 일원과 중문면을 통합하여 서귀포시를 설치할 때 이루어진 12개동의 하나로 서귀동의 일부(옛 서귀1리, 3리 일부)와 옛 토평리의 일부, 옛 동홍리 일부, 옛 보목리를 통합한 동으로 송산(松山)은 서귀포초교 북서쪽에 있는 ‘솔동산’을 솔(松) + 동산(작은山)으로 이해하고 한자로 만든 것이며 원래 이 지역은 소나무가 울창했던 동산이었다고 한다.

가. 보목동의 설촌유래

보목동은 동경 126°37' 서귀포 중심에서 동남쪽으로 약 4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으로는 제주방송국 서귀포 중계소가 있는 '새경물'을 경계로 하여 하효동과 접하며 북쪽으로는 신호동의



'소학남모루'와 토평동의 '모시물' 과 접하고 서쪽으로는 '빌레통' 분지가 경계를 이루고 있는 반농 반어의 마을로서 일찍부터 '볼레낭. 볼레남'이 많은 '개(浦)'라는 데서 '볼레낭개' 또는 '볼레남개'라 불려왔다.

한자표기 '보애목포(浦涯木浦)'는 우리말 '볼레낭개. 볼레남개'의 한자 차용 표기인데 후에 보목리(甫木里)로 쓰여 정착되면서 민간에서는 한자어의 음성형을 그대로 반영하여 '볼목리. 볼몽리'로 부르기도 하였으며 지금도 민간에서는 '볼목리. 볼몽리'라 부르는 경우가 많다.

『남사록』(3권)에는 보애목포(볼레남개), 『탐라순역도』 「한라장축」에는 甫木浦(볼레낭개), 「탐라지도」에는 甫木村(볼레낭개마을) 甫木浦(볼레낭개), 「제주삼읍도총지도」에는 甫南村(볼레남개마을), 甫木浦(볼레낭개, 볼레남개). 『호구총수』(정의, 동홍로면)와 『제주읍지』(제주지도)등에는 甫木里(볼레남개마을) 「정의군 지도」에는 甫木里(볼레남개마을) 甫木浦(볼레남개)등으로 표기 하였다.

『제주읍지』(정의현지, 방리, 우면)에는 '볼레낭개마을은 정의현 관문에서 서쪽으로 55리의 거리에 있다. 민호는 52호 남자는 164명 여자는 169명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⁹⁾

『삼군호구가간총책』(정의군, 우면)에는 '보목의 연가는 127호이다. 남자는

9) 제주읍지(정의현지, 방리, 우면)에

“甫木里 自官門西距 五十五里 民戶 五十二 男 一百六十四 女 一百六十九 ……”

251명과 여자 309명을 합하여 560명이고 초가는 453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¹⁰⁾

18세기경부터 1980년 6월말까지 ‘보목리(甫木里)’라 하다가 1981년 7월 1일부터 서귀읍이 서귀포시로 승격함에 따라 송산동에 소속된 법정동이 되어 지금은 ‘보목동(甫木洞)’이라 하고 있다.

이러한 보목동에 언제부터 사람이 들어와 살았는지는 기록이 없어 자세히는 알 수가 없지만 마을동쪽 ‘고막곶’, ‘통물동산’ 일대에 ‘백씨(白氏)와 조씨(趙氏)가 들어와 살면서 설촌했다고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금도 그곳에는 그 당시 설촌하여 살았던 흔적으로서 그 부근 일대에 밭담줄과 불경지에 과거 선인들이 심어서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대나무들과 오막살이를 지어 살면서 사용하였던 통로들이 현존하고 있는 것 등으로 보아 오래 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그 곳에 살던 사람들은 근처에 있는 속칭 ‘통물동산’과 ‘무남통’에 고인 봉천수를 식수로 사용하였으므로 가뭄이 들거나 여러날 비가 오지 않으면 벌레가 생기는 등 물이 좋지 않아서 상피병으로 추정되는 질병이 생겨 고통을 받게 되자 주민들은 질병의 발병원인을 알고자 하였다.

그래서 풍수지관을 찾아 상담한 결과 비가온 후 날이 개인날 절오름 표면에 햇빛이 쨍쨍하게 비칠 때 암반에서 내리는 물이 햇빛을 되받아 반짝거리는 물 빛이 고막곶 동네로 반사하여 비치는 것이 흉조로 주민들에게 질병이 생기고 있다고 하였다.

그 후 주민들은 살던 오막살이를 남겨둔채 모두 어디로인지 이주하여 버린 후 부터는 그 곳에 남아 있는 사람이 없어 폐촌 되었다고 구전되고 있다.

당시 고막곶에 원주 하였다는 ‘趙氏’와 ‘白氏’ 후에는 현재 보목동에는 찾아 볼 수가 없으나 白氏와 趙氏 등이 설촌하여 소유하였던 귀전명이 지금까지도 ‘백밭’, ‘백개달래’, ‘조개달래’, ‘조개우렁’이라는 지명으로 보아 이들 성씨들이 설촌하였음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하겠다.

10) 삼군호구가간총책(정의군, 우면)에는
“甫木 烟家 一百二十七戶 男 二百五十一口 女 三百九口 合 五百六十口 草家 四百五十三間”

그 후 1,660년경 (약 350년전)에 ‘청주한씨(淸州韓氏)’가 ‘제지기오름’ 서쪽 ‘정술내(井水川)’ 부근에 들어와 살면서 부락이 형성되고 타지역 주민들이 이곳으로 이주하여 정착함에 따라 점차 인구가 증가하게 되자 ‘정술내’의 하류 서쪽으로 사람 살기 시작하였는데 그 곳을 당시 ‘섯가름’이라 불리던 것이 이 동네 지명 유래가 되어 지금도 그 곳을 가리켜 ‘섯가름’이라고 불리우고 있으며 점차 정술내의 서쪽으로도 ‘청주한씨(淸州韓氏)’, ‘제주양씨(濟州梁氏)’, ‘신천강씨(信川康氏)’, ‘고성이씨(固城李氏)’, ‘연주현씨(延州玄氏)’, ‘경주김씨(慶州金氏)’ 등이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확장되고 인구도 증가하여 정술내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구분하여서 동쪽마을을 ‘볼레낭개’ 서쪽을 ‘남포리’로 호칭하였던 때도 있었다고 한다.

성씨별 입촌 내력을 간추려 소개하면 1,666년경 淸州韓氏 信公이 성산읍 수산리에서 입향하였고 1,715년경에 제지기오름 서쪽에서 정술내와의 사이에 淸州韓氏 致貞公이 위미리에서 입향하였으며 濟州梁氏 仁公이 법환리에서 입향하였다.

固城李氏 東現 東祚公도 1,747년경 위미리와 법환에서 입향하였고 1,792년경에는 延州玄氏 德聞公이 성산읍 온평리에서 입향하였다.

1,750년경 淸州韓氏 慶弼공과 慶輔공이 서흥리에서 입향하였으며 信川康氏도 4개과가 본 마을에 입향하여 살고 있는데 1,770년경에 興柱公은 성산읍 수산리에서 입향하였고 1,785년경에 들어온 宗周公 역시 성산읍 수산리에서 입향하였으며 宗才公은 1,796년경 위미에서 입향하였고 1,847년에 입향한 泰利公은 법환동에서 입향하였다.

이 마을에는 韓氏, 康氏, 梁氏, 李氏 등이 주성을 이루고 있으며 한 성씨안에 여러 과가 있으나 형제이거나 뿌리가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연고에 따라 이주해 왔음을 알 수가 있다.

특히 새천년을 여는 2000년도에 제 1회로 제주 고유의 맛을 자랑하는 ‘자리돔’을 특화하여 초여름의 별미인 ‘자리돔 물회’를 테마로 한 축제(자리돔 큰 잔치)를 만들어 ‘자리돔 하면 보목마을, 보목마을 하면 자리돔’을 연상케 할 정도로 지역 축제 활성화와 자리돔을 명품 브랜드화한 지역 주민들의 저력에 감탄

할 따름이며 현재 가구수 916호수에 남 1,303명 여 1,196명 계 2,501명인 본동의 주민은 주로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고 있고 수려한 해안 절경과 천연기념물 파초일엽 자생지인 쏠섬을 앞에 두고 있어 살기 좋은 마을이다.

○ 보목동의 전설

마을 설촌과 관련된 마을 수호신을 모신 ‘조노케당’이 있는데 이 당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아주오랜 옛날 이 마을에 겨우 몇 가구가 모여 처음 부락을 이루고 살아갈 때 이들은 거의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였었다.

이들 중에 일곱 형제를 가진 집안이 있었는데 그들 모두가 고기잡이에 종사하였다.

어느날 그 일곱 형제가 모두 함께 같은 배를 타고 먼 바다로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안개가 끼고 바다가 어지러워서 우선 가까운 섬에 대피하게 되었는데 그 섬은 제주도에서 멀리 떨어진 외눈배기 섬이라는 데였다.

여러해 동안 바다에서 생활하였고 이따금 이렇게 바람과 풍랑에 휩쓸려 표류되기도 여러번이었으나 이 섬은 일곱 형제에게는 생전 처음 와보는 생소한 섬이었다.

섬에 오른 그들은 우선 인가를 찾아 나섰으나 찾지를 못하다가 거의 해가 저물쯤하여 겨우 자그마한 초가집을 발견하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여 초가집을 향해 걸음을 빨리 하였다.

초가집 가까이 이르고 보니 초가는 자그마한 집이었고 주위는 조용하며 단지 불빛만 흘러나올 뿐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다.

주위는 우거진 나무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조용하니 무슨 귀신이 사는 집 같기도 하였으나 그들은 이러저러한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중 형이 주인을 찾았다.

“계십니까? 풍랑을 만나 이 곳에 도착한 사람들인데 하룻밤 묵어가게 해 주

십시오” 몇 번이나 부른 다음에야 나타난 노파에게 형편을 말하고 도움을 청하였다.

노파는 일곱 형제의 모습을 아래로 찬찬히 훑어 내려 보더니

“집은 누추하지마는 들어와서 유하시오.” 하고 그들을 청하였다.

집안으로 들어가 보니 밖에서 보던 것과는 다른 그래도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었고 안에는 방도 꽤 넓었다.

그들 형제는 집의 맨 끝 방에 모두 같이 들어갔다.

방에 들어간 그들은 갑자기 엄습해 오는 잠에 빠져들었으나 막내는 피곤한 것도 몰랐고 잠도 오지 않았으며 오히려 의식이 더욱 맑아졌다.

얼마 후에 저녁상이 들어왔다.

“이곳 음식이 입에 맞을런지 모르지만 배고픈 대로 요기나 하시오들.”

그 노파가 손수 저녁상을 차리고 들어와 눈을 비비슬며 일어나 앉은 젊은이들에게 말하면서 상을 내놓았다.

그러자 형제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 저녁을 먹기 시작하였다.

반찬이 없고 밥과 국만 차려있는 저녁이지만 그들은 며칠 굶은 참이라 허겁지겁 먹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막내만은 아무래도 그 국맛이 마음에 꺼렸다.

고기국 같기도 한데 생전 처음 먹어보는 국으로 그 맛이 이상하였다.

그래도 여러 형들은 그저 잘만 먹었으나 막내는 먹는 시늉만 조금 하다가 그만 물리쳐 버렸다.

식사가 끝난 이들은 이리저리 쓰러져 잠이 들었다.

막내만 그냥 벽에 몸을 의지하여 잠을 자는 척 하였으나 속으로는 이상한 이 집의 분위기에 여러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게 얼마가 지난 후였다. 밖이 웅성웅성 하더니 누가 온 것 같았다.

“아이고 영감, 이제야 오십니까?”

“오늘은 재수가 없는 날이오, 사냥도 못하고”

“아니 한 마리도 못 하였우과 ? 난 집에 앉아도 일곱 마리나 하였는데...”

“일곱 마리? 아니 그것들 어디 있어?”

“저 안방에 가둬 두었습니다.”

막내는 어렴풋이 잠이 들락말락 하였는데 밖에서 들려오는 두 늙은 부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오는데 정신이 바짝 차려졌다.

막내는 일어나서 문을 살그머니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열 수가 없었다. 좀더 힘을 내서 열어보려고 하였으나 허사였다.

“이거 우리는 영락없이 간헐구나. 그러면 저들은 사람이 아니다. 사냥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사람을 잡지 못하였다는 말이 아닌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막내는 옆에서 세상 모르게 자는 형들을 깨워서는 지금 들은 이야기며 여러 가지 자초지종을 털어 놓았다.

“뭐 우리를 잡아먹기 위하여 가두어 놓았다고?”

모두들 놀랐으나 서로들 얼굴만 쳐다볼 뿐 별 도리가 없었다.

일곱 형제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여러 도구들을 꺼내어 밖으로 나갈 벽을 부수기 시작하였다.

형들 둘은 밖을 살피고 나머지는 조용조용히 벽을 뚫어 밖으로 빠져 멀리 도망을 치려 하였으나 그들은 어디를 가야 할지 몰랐으며 무작정 달려나올 뿐이었다.

얼마를 달려가는데 어떤 백발 노인이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할아버지 말씀 좀 묻겠습니다.”

막내가 공손히 말하였다. 노인은 말없이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우리는 먼 곳에서 고기잡이 왔다가 풍랑을 만나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혹시 이 섬에서 배를 델만한 곳이 어딴니까?”

사실 그들은 그들이 배를 대고 내렸던 곳을 찾을 수 없었다.

그 때였다. 저 먼데서 어떤 자가 말을 타고 이곳으로 오는게 눈에 띄었다.

그것은 필시 그들을 가두어 놓았던 노인네 같아 사태가 급박하였다.

“할아버지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저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제일 큰 형이 황급히 말하였다.

노인은 자초지총 묻지도 않고 옆에 있는 큰 바위를 굴려서 그들을 그 곳에 숨겨 주었다.

얼마 있더니 말을 타고 개를 데린 노인이 다가와서는
“이 근방으로 젊은이 일곱이 지나가는 것을 못봤습니까?”

노인에게 물었으나 노인을 머리를 흔들었다.

개가 그 바위 주변을 돌면서 코를 벌름 거렸으나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고 말을 탄 자도 그 주위를 몇 번이나 돌면서 젊은이들을 찾다가 그냥 돌아가 버렸다.

노인은 다시 그 큰 바위를 굴려 일곱 형제를 나오도록 하자 일곱 형제는 그 동안 당하였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머리를 끄덕이더니 바닷가로 이르는 길을 일러 주었다.
“배를 타거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면서 가는데 입을 꼭 다물고 가야 하네. 만약 뒤를 돌아보거나 말을 하면 다시 이곳으로 되돌아와 버리네. 부디 내 말을 명심하고 어서 떠나게.”

말을 마치자 손을 저으면서 어서 떠나기를 부탁하였다.

형제들은 바닷가에 이르러서 급히 배를 찾아 타고는 바람에 배를 띄웠다. 배는 순풍에 돛단 듯이 미끄러져 나가자 그들 형제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들이 떠났던 고향 보목리가 눈앞에 보이더니 순식간에 마을 개말에 이르렀다.

그들은 배를 막 개말에 대면서 “아이고 이제는 살았구나!”

제일 큰 형이 아직 채 내리기도 전에 한마디 하고 말았다.

그러자 눈깜짝할 사이에 타고 왔던 배가 획하니 다시 그 섬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들은 기가 막혀 어쩔 수 없이 다시 그 노인을 찾지 않을 수 없었다.

“왜 말을 허수룩게 듣는 거요?”

겨우 이 한마디를 하고는 노인이 그 청년들을 앞장서 직접 그들을 배에 태우고 배를 띄워 같이 오는 것이어서 얼마나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랐다.

그렇게 그들을 무사하게 고향까지 데려온 그 노인은 청년들과 함께 보목리

에서 지냈으며 그 노인은 사람의 모습을 한 신이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은 마을에서 적당한 곳을 물색하여 그 노인을 모셨는데 그 곳이 절오름 아래 당이었다.

그 후 오래도록 그 당에 모신 그 노인은 바로 보목리를 지켜주는 신으로 대대로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서 숭앙을 받아오고 있는데 지금도 마을 사람들은 정월이 되면 1년에 한번은 꼭 이 본향당인 조노기괴를 찾아 가내의 안녕과 마을의 평안함을 기원하고 있다고 한다.

<보목동 한무섭(남. 84세) 제보>

- 제주의 마을 시리즈 보목리-에서

※참고문헌. 우리고장의 설촌유래(1986. 2. 25) 서귀포시교육청
서귀포시지명유래집(1999. 4. 28) 서귀포시
서귀포시지(2001. 7. 1) 서귀포시
제주의 마을 시리즈 보목리(2002. 12. 30) 오성찬
보목마을 현황(2009. 7) 보목동마을회

5. 효돈동

효돈동의 옛 이름은 ‘쉐둔’ 또는 ‘쉐돈’이고 ‘쉐둔’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 우둔(牛屯)이다. 곧 ‘쉐(소)’의 한자 차용표기로 우(牛), 둔(屯), 돈(頓)(여럿이 모여서 이룬 때)의 한자 차용 표기로 둔(屯)을 차용하여 표기한 것으로 ‘쉐(소牛)’를 모아 두었던 곳이라는 데서 붙인 이름으로 보인다.



우둔촌(쉐둔마을, 쉐돈마을)은 18세기 중후반부터 효돈리(孝頓里) 또는 효돈리(孝敦里)로 표기하다가 18세기 후반부터 효돈리(孝敦里)로 굳어졌으며 이에서 효돈동(孝敦洞)이 유래하였던 것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옛 중효리와 상호리 일부(상효리의 나머지 일부는 남원읍 하례리로 편입)가 상호리, 옛 하효리와 신호리의 각 일부가 하효리, 하효리와 신호리의 각 일부가 신호리로 통합되었다.

이때부터 상호, 하효, 신호의 세 마을 체계가 계속 이어지다가 법률 제 3425호(1981. 7. 1)에 의해 서귀읍 일원과 중문면을 통합하여 서귀포시를 설치할 때 이루어진 12개 동의 하나로 옛 신호리와 하효리를 통합하여 만든 동이다.

가. 신호동의 설촌유래

신호동은 서귀포에서 동쪽으로 약 3~5km 사이에 위치하며 동북쪽으로는 큰내(효돈천)를 경계로 하례리와 접하고 동남쪽에는 하효동과 인접하여 경계를 이루며 특히 인가가 서로 마주 접하여 같은 생활권에서 살아가고 있다.

서쪽으로는 서상효, 토평동과 접하고 북으로는 동상효와 서상효와 접하며 남쪽으로는 하효동과 보목동이 접하여 도내에서는 산간부락이 아

는데도 바다가 없는 몇 안 되는 마을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신호동은 ‘들라미>드라미 [月羅山>月羅峯]’ 바로 동남쪽에 형성되어 있는 마을로서 옛 이름은 ‘새쇄둔, 새쇄둔’ 이고 이를 한자



로 표기한 것이 신호동(新孝敦), 신호(新孝)이다.

신호동은 「삼군호구가간총책」(정의군, 우면)에 “새쇄둔의 연가는 134호이다. 남자 302명과 여자 299명을 합하여 601명이고 초가는 590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¹¹⁾

원래 신호동은 일찍부터 ‘쇄둔, 쇠둔(牛屯)’ 이라 불려오다가 ‘알쇄둔마을’이라 하여 ‘하우둔촌(下牛屯村)’이라 하였다.

하우둔촌은 18세기 중후반에 하효둔리(下孝敦里)와 중효둔리(中孝敦里) 2개 마을로 나뉘었는데 신호동은 중효둔리(中孝敦里)라 하였던 것이다.

또한 18세기 중후반부터 牛屯(쇄둔)이라는 한자 표기를 효돈(孝頓) 또는 효둔(孝敦)으로 바꾼 것은 ‘효’를 도탑게 하는 마을’이라는 데서 새롭게 만든 것인데 이것이 나중에 효돈(孝敦)으로 굳어졌다고 한다.

19세기 중반에는 중효둔리가 다시 중효리(中孝里)와 신호리(新孝里) 2개 마을로 나뉘었는데 이 당시 중효리와 신호리는 ‘들라미>드라미’ 동남쪽과 서쪽 일대에 있었던 마을로서 1905년 이후에 중효리와 신호리는 신호리(新孝里)로 이름을 바뀌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정의군 우면 하효리(下孝里) 일부와 신호리(新孝里) 일부를 병합하여 제주군 우면 신호리라 하였는데 신호동(新孝洞)은 이 신

11) 삼군호구가간총책(정의군, 우면)에는 “新孝, 烟家 一百三十四戶 男 三百 二口 女 二百九十九口 合 六百一口 草家 五百九十間”

효리 일대를 이르는 이름이다.

1981년 7월 1일 서귀읍이 중문면과 통합하여 서귀포시로 승격할 때 신호리와 하효리를 병합하여 효돈동(孝敦洞)이라 하였다.

신효동에 1400년 이전에 집촌을 형성하여 사람이 살았다는 기록은 없으나 주변에 지석묘가 산재해 있었다는 구전이 전해지고 있고 지금도 방묘형식의 분묘가 여러개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틀림없이 이곳에 집촌을 형성하여 살았음이 확실하며 특히 이런 고분에서 이조 초기 백자 및 고려시대 유품이 출토 되었었고 지금도 도굴꾼에 의해 파헤쳐 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고려 중기부터 촌락을 형성하여 정착민이 살고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으나 그에 따른 문헌이나 증거 될 만한 유물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아쉽기 한이 없다.

따라서 구전 또는 유사 기록으로 보아 신호지역에 사람이 정착하고 촌락을 형성한 시기는 1400여년경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입촌이 활발히 이루어진 시기는 1500년도 중반기에서 1600여년경으로 추정되며 이때 설촌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처음 이곳에 정착한 사람은 文氏로 알려지고 있으며 때를 같이하여 입촌한 성씨로서 韓氏, 徐氏, 宋氏, 趙氏 등이 들어와 구성(舊城)마을에 촌락을 형성 하였고 주변에는 성을 쌓아 살았다고 한다.

현재 文氏는 하례리로 이주하여 후손들이 살고 있으나 그밖에 徐氏, 宋氏, 韓氏, 趙氏는 어느곳으로 이주해 갔는지는 알 수가 없다.

지금 신호동에 거주하고 있는 성씨로서는 高氏가 가장 오래되는데 高氏는 구성마을에 거주하다 기르던 소가 자주 남쪽(큰가름)으로 내려오자 소가 내려와 있는 곳에 집터를 정했다고 하며 당시 생활은 농경사회로서 경작과 목축업이 주를 이루고 수렵이 깃들어진 농경중심의 사회라고 볼 수 있다.

1500년대 후반기에서 1600년도 경에 경주김씨(慶州金氏), 신천강씨(信川康氏), 군위오씨(軍威吳氏), 연주현씨(延州玄氏), 제주고씨(濟州高氏) 등이 '구성마을'과 '중쇄돈'일대에 들어와 큰 가름을 중심으로 촌락을 형성하고 인가가 주변

으로 퍼져 나갔다고 하며 위의 다섯 성씨는 오늘날 까지도 그 후손들이 신호동에 살고 있다.

1872년 「제주삼읍전도」에는 신호지역 위쪽에 상효마을이 표기되고 아래쪽에는 큰 냇가 서쪽을 따라 하효마을이 표기되어 효돈경내에는 ‘上孝, 中孝, 新孝, 下孝’로 4개 촌락이 있었음을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구한말 징세자료(신효동 康昌彦 소장)에 의하면 ‘상효리, 중효리, 신호리, 효돈리, 하효리’ 5개 마을로 분리해 나타나고 있다.

신효지역에 신호리, 중효리, 효돈리 3개 마을이 있었다고 볼 때 지금은 그 정확한 위치를 어림잡기가 힘들고 어떠한 연유로 ‘중효리, 효돈리’가 없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다.

오늘날에는 19개의 성씨가 586호수에 남 1,117명 여 1,112명 계 2,229명으로 구성된 마을로서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상업 자유업 공무원 기타 많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살기 좋고 인심 좋은 마을이다.

○ 신호동의 전설

신효마을에 최초로 입향하여 정착했다는 문씨에 대한 전설이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어 그 내용을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한라산 영봉에 잔설이 녹아 내릴 때 쫓 큰형 집에 얹혀 살던 문씨가 아내와 아들 딸 오누이를 데리고 살 곳을 찾아 아침 일찍 길을 나섰다.

문씨는 등에 비교적 큰 붓짐과 농사도구를 걸치고 붓짐속에는 서너가지 농사 지을 씨앗을 넣었고 아내의 붓짐은 부피는 컸어도 가벼운 옷가지랑 필요한 식기류를 챙겼고 오누이는 등에 조그만 붓짐을 힘에 맞게 지고는 종종 걸음으로 부모님의 뒤를 따랐다.

문씨 가족은 목적지를 정해 길을 떠난 것이 아니고 무작정 살 곳을 찾아 남쪽을 향해 들판을 넘고 개천을 건너고 산등성이를 돌며 정착할 곳을 찾아 무작정 걸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힘을 북돋우며 걸었는데 해가 저물어 갈 때 바다가 시원히 보이고 뒤로는 큰 오름과 한라산이 커 안은듯한 야트막한 구릉위에 도착했다. 문씨는 이곳이 마음에 들었다.

문씨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이곳에서 살자” 하고 말했다.

온종일 걸어와 발이 부르터 있었던 터라 아내도 아이들도 모두 좋다고 하였다. 짐을 풀고 터를 정하니 이 지역에 사람이 정착한 시초이다.

당시 신호지역은 곳밭으로 흙보다는 자갈이 많아서 돌을 주어내고 받을 일구는 것이 여간 힘든일이 아니었다.

손과 발이 멍들도록 일한 문씨 부부와 가족은 잘 살게 되었다.

이렇게 문씨가 정착한 후에 어디에서 흘러들어 왔는지 모르나 뒤이어 한씨, 서씨, 송씨, 조씨 등이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다.

대여섯 가구가 서로 수눌며 일도 하고 서로를 돌보며 살았고 바람도 막고 가축도 보호하고 재난을 막기위해 성을 쌓았다고 한다.

그 흔적이 오래전까지 있었다 하며 그 곳은 “구성(舊城)마을”이라 전해지고 있다.』

※참고문헌. 우리고장의 설촌유래(1986. 2. 25) 서귀포시교육청
신효동 마을지(1996. 12. 20) 신효동마을회
서귀포시지명유래집(1999. 4. 28) 서귀포시
서귀포시지(2001. 7. 1) 서귀포시

나. 하효동의 설촌유래

하효동은 서귀포에서 동쪽으로 약 5km 사이에 위치하며 동쪽으로는 효돈천을 경계로 남원읍 하례리와 접하고 서쪽으로는 신희동과 인접하여 같은 생활권을 갖고 살아가는 효돈천 하류



서쪽 일대에 형성되어 있는 마을로서 옛 이름은 ‘쉐돈마을. 쉐돈마을(牛屯村)’이라 불려 오다가 ‘알쉐돈마을’이라 하고 18세기 초반부터 ‘하우둔촌(下牛屯村)’으로 표기 하였다.

18세기 중반부터 하우둔촌은 ‘하효돈리, 중효돈리’ 2개 마을로 나뉘었는데 이때 하효동은 ‘하효돈리’라 하였다.

18세기 중후반부터 우둔(牛屯)이라 쓰던 것을 효돈(孝敦)이라 하였으며 19세기 부터는 ‘하효리(下孝里)라 하였던 것이다.

하효동은 『제주읍지』(정의현, 방리, 우면)에 “알쉐돈마을은 정의현 관문에서 서쪽으로 50리의 거리에 있다. 민호는 101호, 남자는 280명, 여자는 347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¹²⁾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정의군 우면 하효리 일부와 신희리 일부를 병합하여 제주군 우면 하효리라 하였으며 1981년 7월 1일 서귀읍과 중문면이 통합하여 서귀포시로 승격할 때 신희리와 하효리를 병합하여 효돈동(孝敦洞)이라 하였고 법정동인 하효동이 되었다.

하효마을이 언제 설촌되었는지는 문헌이 없어 자세히는 알 수가 없으나 주변의 유물산포지에서 수습되는 토기의 형태로 볼 때 4세기경부터 사람들이

12) 제주읍지(정의현지, 방리, 우면)

“下孝敦里. 自官門西距 五十里, 民戶 一百一, 男 二百八十, 女 三百四十七”

살았던 것으로 보이나 본격적으로 마을이 들어선 것은 고려시대 호촌현(狐村縣)이 설치된 이후로 볼 수 있다.

호촌현은 지금의 남원읍 하례 1리의 일주도로 남쪽 일대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민간에서는 “예촌가름”으로 불리는 곳이다.

평평한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고 동편으로 신례천이 용천수(산이물)와 해안의 포구가 발달해 있어서 현촌(縣村)과 같은 큰 마을이 들어서기에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다.

고대 이래로 사람들의 주거가 이뤄지고 이곳을 중심으로 큰 마을이 형성되다가 1300년에 이르러 속현(屬縣)으로 행정구역이 정비된 것이다.

속현은 주읍(主邑)에 종속되어 있으나 관리가 파견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통치기구를 지니고 있는 고을이다.

관내에 독자적으로 구역과 주민들이 있고 행정을 담당하는 관청 건물도 들어서 있었다.

현재에도 예촌가름에는 ‘대궐터’, ‘절왓’, ‘옥터’, ‘전세포’ 등의 지명이 남아 있는데 대궐터는 당시 고을을 다스리던 관청(縣司) 건물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의 하효마을은 현촌인 호촌현이 성장함과 더불어 점차 마을의 모습을 갖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효돈천을 사이에 두고 호촌현과 접하고 있어서 호촌현이 커짐에 따라 주민들이 지금의 하효 마을로 이주 정착하면서 모듬살이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마을의 고노(古老)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하효는 800여년 전에 “예촌가름”인 ‘알쇄돈’일대에 경주김씨(慶州金氏)와 文氏가 들어와 정착하여 설촌되었다고 하며 그 후 徐氏, 韓氏, 宋氏등이 들어왔다고 한다.¹³⁾

이와같이 고려후기 호촌현의 설치와 더불어 초기 촌락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하효는 이후 호촌현과 동일한 생활권으로 이어져 내려왔다.

현재에도 예촌가름에 있는 토지의 상당 부분을 하효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고 지금의 우금 바다(예촌망의 해안)도 근.현대까지 하효 마을에서 관리한 사

13) 서귀포시지(2001. 7. 1) 상권 P. 272 : 11~12

실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고려시대의 속현들이 직촌(直村)화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효돈 남원 일대의 중심 취락이었던 호촌현도 속현에서 직촌으로 바뀌게 된다.

직촌은 관내의 통치기구인 현사(縣司)나 현리(縣吏)를 거치지 않고 수령이 직접 지배하는 직할촌을 의미한다.

기존의 속현이 직촌으로 바뀌는 현상은 각 지역의 토호 세력이 점차 약화되면서 중앙 행정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게 됨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호촌현은 조선 초기 지방행정구역 개편이 단행되는 태종시기 1416년(태종 16)에 새로 설치된 정의현(旌義縣)내에 합속되면서 속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마을의 세력도 급격하게 약화되었고 이후 호촌현은 일개 마을에 불과한 호촌(狐村) 마을로서 명맥을 유지하게 된다.

조선초기 호촌현이 직촌이 되어 점차 쇠락해짐에 따라 하효 마을도 쇠퇴의 길을 걸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15세기 중반 이후로는 드문드문 인가가 들어설 정도로 한적한 곳으로 변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1500년대를 거치면서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는데 제주도 동부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이곳에 이주 정착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당시 상황을 자세히 고증할 수 없지만 현 거주자의 족보에 의하면 1985년 당시 濟州高氏의 경우 입촌 16대손이 살고 있고 光山金氏의 경우 입촌 15대손이 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16세기 초에는 일부 주민들이 마을에 이주 정착하여 거주했던 것으로 보인다.¹⁴⁾

일부 주민들이 이주 정착이 진행됨에 따라 하효는 다시 마을의 모습을 갖추 나갔는데 조선 후기로 가면서 이 일대의 대표적인 마을로 성장하게 된다.

18세기 후반 하효 마을의 구성원인 성씨별 분포 상황을 통해 어느정도 마을

14) 하효동 마을회 1987. 「하효지」에는 400여년전에 구성마을에 문씨가 정착했다는 구전을 소개하고 있지만 현재 그 후손들이 하효마을에 남아있지 않다.

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

마을에 현존하는 고문서(帳幕新造入參冊錄 1754~1830, 喪與新造入參錄. 1763~1823)에 보면 康氏, 金氏, 高氏, 玄氏, 李氏, 許氏, 文氏, 鄭氏, 洪氏, 邊氏, 俞씨, 宋氏, 韓氏, 尹氏, 梁氏, 吳氏, 權氏, 趙氏, 梁氏, 任氏 등 많은 성씨들이 장막계와 상여계에 입회한 사실을 통해 본 마을이 이 일대의 대촌으로 성장하여 다양한 성씨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음을 엿 볼 수가 있다.¹⁵⁾

그리고 조선조 하효 마을의 명칭으로 불렸던 牛屯(쉐둔/쇠둔)이란 지명은 어떻게 유래된 것일까?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설이 없는 듯 하며 이전에 간행된 『하효지』에서는 하효마을의 형상이 소가 누운 것과 같아서 붙여진 지명이라고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우둔(牛屯)이라는 한자 지명은 ‘쉐둔/쇠둔’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둔’은 그대로 표기하고 ‘쉐’를 한자인 ‘牛’로 바꾸어 표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하효 마을이 원지명은 ‘쉐둔’으로 볼 수 있는데 쉐둔이란 지명은 말 그대로 소를 키우던 둔(屯)이 있었던 곳을 의미한다.

‘둔’이란 것은 일정한 범위로 구획을 정하여 소를 가두어 키우던 목장에 해당하는데 제주도에서는 원나라가 최초 목장을 건설한 이후 제주도의 중산간을 비롯하여 많은 곳에서 목장이 만들어졌는데 중산간에는 주로 마목장이 형성되었고 중산간 이하 해안지대로는 일부에 우목장도 축조 되었다.

지금의 알밤오름 기슭에 있었던 우목장, 대정읍 신도리 일대에 있었던 모동장이나 표선면 하천리에 있었던 천미장 등이 대표적인 우목장이었다.

원래 하효 마을 지역에도 지명으로 붙여졌던 것으로 보인다.

지명은 원래 그 지역의 특성에서 비롯되어 붙여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쉐둔’이라는 원지명도 ‘소를 키우던 둔’이 있어서 붙여진 지명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민간에서 불리던 ‘쉐둔’이라는 지명이 이후 ‘우둔’이라는 한자 지명으로 바뀌면서 문헌자료에 수록되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¹⁶⁾

15) 하효지(2009. 12) 장막계와 상여계에 입회한 성씨별 분포상황

16) ‘우둔’이라는 지명은 1653년 이원진의 탐라지에 최초 등장한다. 이 책의 대정현 고적조에는

여기서 우둔은 하효 마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한림읍 동명리의 옛 이름이다. ‘우둔’이라는 지명이 산북에도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쇄둔’이라는 일반명사가 후에 특정 지역을 가리키는 특수명사로 굳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쇠둔(牛屯)’이라는 마을 지명의 유래에 대해 지금까지 지형이 와우형(臥牛形 : 소가 누워있는 형태)이라서 붙여졌다는 설이 널리 인정되고 있는데 이는 풍수지리의 형국에서 지명의 유래를 찾은 것으로 정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본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제주 사회에 풍수지리가 유입되는 시기는 조선후기에 이르러서이기 때문이다.

조선전기에는 풍수지리가 도입되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밭머리에 산소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경지 가운데 산소가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선후기에 도입되는 풍수지리의 형국론에서 마을의 이름이 유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후 이 마을에 거주했던 고명학(高鳴鶴)이라는 사람이 ‘사헌부 장령’ 벼슬을 지낸후 대정현감으로 부임하였는데 그의 효행이 널리 알려져 1834년 효자 교지를 내렸고 암행어사가 왔을 때 효자가 사는 마을이니 쇠둔(牛敦) 보다는 효돈(孝敦)이 좋다 하여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¹⁷⁾

그러나 1789년에 간행된 『호구총수』에는 이미 상효돈리(上孝敦里), 중효돈리(中孝敦里), 하효돈리(下孝敦里)라는 지명이 표기 되어 있어서 이 설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이 보다는 처음 ‘쇠둔/쇄둔’을 한자로 ‘우둔’이라 표기했는데 ‘쇠둔’과 비슷한 음가를 지니면서 어의가 좋은 ‘효(孝)’와 ‘돈(敦)’을 사용하여 ‘효돈(孝敦)’이라 표기한 것이라고 한다.

※참고문헌. 우리고장의 설촌유래(1986. 2. 25) 서귀포시교육청
서귀포시지명유래집(1999. 4. 28) 서귀포시
서귀포시지(2001. 7. 1) 서귀포시
하효지(1987. 5. 1). 하효동마을회

1418년 왜적이 우둔을 침입했다는 기사가 있다.

17) 한평주 1986. (효돈의 역사) 남도인쇄사 14쪽

6. 영천동

영천동은 ‘영세미오름/영천악’ 일대에 형성된 마을로 이에서 영천동으로 하였고 법률 제 3425호(1981. 7. 1)에 의해 서귀읍 일원과 중문면을 통합하여 서귀포시를 설치할 때 이루어진 12개동의 하나로 송산동 구역으로 편입된 구역을 제외한 토평동 지역(옛 토평리)과 상호동(옛 상호리), 법호촌을 통합한 동이다.



가. 토평동의 설촌유래

토평동은 서귀포 중심에서 동북쪽으로 약 2~3km사이에 위치해 있는 중산간 마을로서 동쪽에는 상호동 서쪽에는 동홍동 남동쪽에는 신호동과 보목동이 북쪽에는 법호촌과 경계를 이루어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마을로서 옛 이름은 ‘뚝도르’이며



이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 토평(土坪), 토평(吐坪)이다.

『삼군호구가간총책』(정의군, 우면)에 “뚝도르의 연가는 187호이다. 남자 361명과 여자 404명을 합하여 765명이고 초가는 702칸이다.”¹⁸⁾

민간에서는 ‘뚝도르’ 또는 ‘뚝평’이라고 하며 ‘뚝벙디’라 하는 사람도 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옛 ‘토평리’와 ‘동흥리’의 각 일부를 통합하여 ‘토평리’라 하였고 1981년 7월 1일 서귀포시로 승격되면서 일부는 ‘송산동’ 지역이 되고 일부는 ‘영천동’ 지역이 되었다.

그러면 토평에 언제부터 설촌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정확한 기록이 없어 자세히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부터 400~500여년전에 金氏, 鄭氏, 吳氏, 高氏, 趙氏 성을 가진 사람들이 본동에 정착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어 설촌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동래 정씨 종손(능모) 14대조 간(幹)공이 1,550년경 남원읍에서 입향한 것을 비롯하여 군위 오씨 입향조인 덕립(德立)공도 1,600년경 가시리에서 입향하여 많은 후손들을 두셨는데 현재 14대에 이르고 있으며 광산 김씨의 입향조인 효맹(效孟)공이 1,630년경 토산리에서 입향하였고 군위오씨 입향조인 언립(彦立)공도 1,650년경 표선에서 입향하였으며 제주고씨 입향조인 종제(宗濟)공도 1,700년경 성읍리에서 입향하였다.

그리고 1714년에 제주부씨 만웅(萬雄)공이 구좌읍 하도리에 입향하였으며 이후 1700년대 중반부터 1900년대 사이에 많은 성씨들이 본 동으로 이주해와 마을이 많이 커졌음을 알 수가 있다.

전해오는 구전에 의하면 토평리는 처음에는 현재 서귀포 갈 호텔 북쪽 속칭 ‘무근가름(광숙이왓, 왜왓) 등에 정착하여 살다가 현재의 위치로 이주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광숙이왓’과 ‘왜왓’ 등지에서는 사람이 살았던 흔적들을 찾아 볼 수가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현재의 위치로 언제 어떤 이유로 이주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대략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볼 수가 있다.

18) 삼군호구가간총책(정의군, 우면)에

“吐坪, 烟家 一百八十七戶 男 三百 六十一口, 女 四百四口, 合 七百六十五口, 草家 七百二間”

첫째. 생활터전을 바다에 두고 살던 사람들이 점차 농경사회로 전환하면서 농토가 넓은 곳을 찾아 위쪽으로 이주하여 마을을 형성하여 정착하게 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둘째. 당시는 임진왜란 직후라 바닷가는 왜구들의 침범이 잦아 안전을 위해 위쪽으로 이주하지 않았나 추정된다.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인데 본 토평 마을이 형성된 현 위치에는 물이 없다.

물이 없는데도 현 위치에 마을이 형성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선인들이 절대적인 신앙이라 할 수 있는 ‘풍수지리설’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았나 추정해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본 토평리는 좌청룡으로 내청룡은 상호마을 ‘므루’이고 외청룡은 ‘월라산’, ‘감악산’ 등이고 우백호는 내백호가 ‘사막므루’ 동홍동 ‘жат목동산’이며 외백호는 ‘각시바위’와 ‘고근산’ 등이다.

전주작(前朱雀)으로는 ‘골머채동산’, ‘답단이동산’ 먼 쪽은 ‘제지기오름’ 과 섯섬이며 후현무(後玄武)로는 가까이에는 ‘이신악’이요 먼 쪽으로는 ‘미악산’을 들 수가 있으며 그 가운데 평평하게 펼쳐진 곳이라 하여 천하 명당이라 할 수가 있어 마을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면 토평이라는 마을 이름의 유래는 어떠한지 그 연유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옛날 한라산에 산돼지가 많이 서식하고 있었는데 특히 본 토평 마을 근처에는 멧돼지가 좋아하는 도토리(츠낭열매)가 많아서 멧돼지가 많이 서식하였다고 한다.

‘뚝’은 돼지의 15세기 고어이고 ‘드르’는 제주 방언으로 들판(野原)인데 이 말은 어원상으로 몽골에서 들판을 의미하는 tala에서 연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몽골이 100여년간 제주를 지배하던 때가 있었다.)

‘돛도르’란 말을 직역하면 돈야원(豚野原) 즉 돼지 떼를 넓은 들판에서 소나 말처럼 방사(放飼)하는 지역이란 뜻으로 예전에는 돼지도 소나 말처럼 놓아 먹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처음에는 토평(土坪)이었다가 18세기 초반의 『탐라순역도』 「한라장축」에는 토평(土坪)으로 『탐라지도』에 수근대평대(水近代坪代), 18세기 중반의 『제주삼읍도』에는 土坪村(돛도르 마을), 18세기 후반의 『호구총수』 『제주읍지』에는 토평(吐坪) ‘돛도르 마을’ 등으로 표기하였다.

이것으로 볼 때 ‘돛도르’의 한자 표기는 토평(土坪)으로 표기하였다가 나중에 토평(吐坪)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하겠다.

2004년 현재 본 토평동은 18개 성씨로 남 1,775명 여 1,754명 계 3,529명으로 구성된 마을로 주민 대부분이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참고문헌. 우리고장의 설촌유래(1986. 2. 25) 서귀포시교육청
서귀포시지명유래집(1999. 4. 28) 서귀포시
서귀포시지(2001. 7. 1) 서귀포시
토평마을지(2004. 12. 20) 토평동마을회

나. 상호동의 설촌유래

상호동은 서귀포 중심에서 약 4.5km에 위치한 마을로서 옛 이름은 ‘웃쇄둔, 웃쇄둔’이며 이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 ‘상우둔(上牛屯)’, ‘상효둔(上孝敦)’, ‘상효(上孝)’이다.

『제주읍지』(정의현지, 방리, 우면)에 “웃쇄둔 마을은 정의현 관문에서 서쪽으로 50리의 거리에 있다. 민호는 29호 남자는 75명 여자는 83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¹⁹⁾

18세기 중반경에 ‘웃쇄둔’과 ‘알쇄둔’ 사이에 마을이 번성하여 ‘중우둔리/중쇄

19) 제주읍지(정의현지, 방리, 우면)

“上孝敦里, 自官門西距 五十里 民戶 二十九 男 七十五 女 八十三”

둔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19세기 후반에 '웃쇄둔'은 상호둔, '중쇄둔'은 중효둔으로 표기 하였다.

지명의 2음절화에 따라 셋째 음절 '둔' 또는 '돈'을 생략하여 상호, 중효로 표기하고 또한



접두사가 붙은 상호둔, 중효둔 등을 아울러서 효둔이라 하기도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옛 중효리와 상호리 일부(상효리의 나머지 일부는 남원읍 하례리로 편입)를 상호리(上孝里)라 하였다.

일제시대에 마을이 커지면서 마을 동쪽을 '상효리' 또는 '동상효리' 서쪽을 '서상효리' 또는 '서효리'라 하다가 1950년대 초반부터 '서상효리'를 '상효1리', 동상효리를 '상효2리'라 하였으며 1981년 7월 1일 서귀읍이 서귀포시로 승격되면서 영천동에 소속되었다.

본 상호동은 지금부터 약 400여년전 趙氏, 鄭氏, 許氏 세 성씨가 정착하면서 설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을 서북쪽에 '조개(趙哥)물'이라는 샘이 있으며 속칭 알동네에는 鄭氏가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 '정우영' 또 이 동네에 許氏가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 '허질생이 드르' 와 '허동갱이 우영'이 있다.

당시 이 마을의 이름은 토평리와 마찬가지로 '돛도르' 였었다.

그 후 1902년 제주, 정의, 대정 등 3군제를 실시할 때 지금의 상.하효. 신희리는 정의군에 속하였고 효둔(孝敦)이라는 한 마을이 있었는데 군위 오씨의 집성촌이다.

軍威 吳氏의 입도 6세 덕립(德立)은 상호 1리의 조개물터에 자리를 잡았고 梁氏, 金氏, 夫氏 등이 이주해와 부락의 근간을 이루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15년 서귀포시가 우면 당시에 상호는 한때 서효(西孝)라고 불리운 적도 있었으며 1935년 서귀면으로 바뀔 때 西孝가 ‘上孝’로 개명하였다.

이후 1948년 4.3사건때는 주민들을 소개하여 이웃 마을로 흩어졌다가 이듬해 주민들의 원에 의하여 복귀되었다.

옛 상호 2리는 450여년전에 鄭氏가 들어와 살면서 설촌되었다고 전하며 그 후 17세기 중반에 高氏, 金氏, 吳氏, 玄氏, 姜氏 등이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커졌다고 한다.

※참고문헌. 서귀포시지면유래집(1999. 4. 28) 서귀포시
서귀포시지(2001. 7. 1) 서귀포시
토평마을지(2004. 12. 20) 토평동마을회
상호 설촌 유래비

다. 법호촌의 설촌유래

법호촌은 서귀포 중심에서 동북쪽으로 약 4~5km에 위치한 중산간 마을로서 영천악(상효동 산 123번지 일대에 솟아있는 해발 277m의 야산) 서쪽일대에 형성된 마을이다.



일제시대에는 1941년부

터 1945년 해방될 때 까지 일본군이 일시 주둔하기도 했었고 지금부터 100여년전 상동에 화전민 6세대 하동 ‘배낭굴’에 4세대 등 10여세대가 거주하다가 서귀포와 토평으로 이주 하였다고 하며 1910년경 연주 ‘현

의준(玄義俊)’이라는 분이 축산을 하면서 살다가 1948년 4.3사건이 발생하자 그 또한 이 곳을 떠나 버려 한 때 이곳은 허허 벌판이 되었었고 한라산을 중심으로 준동하는 공비 등을 토벌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서 군경이 주둔한 적도 있었다.²⁰⁾

1950년 6.25사변으로 모슬포에 제1훈련소가 창설되자 이곳은 1952년 3월 15일부터 1954년 4월 18일 까지 육군 제1훈련소 제5숙영지가 들어서자 강병양성의 요람이 되기도 했었다.

1955년 10월 13일부터 6.25사변시 피난민으로 구성된 제주난민 귀농정착 개척단(1950년 북괴 남침으로 인하여 육지부에서 전란을 피하여 제주에 입도하여 각 마을과 각 구호단체에 수용되어 있는 난민과 4.3사건 이재민을 정주하도록 구제하기 위하여 제주도에서 후원을 하여 창단한 난민단체) 136세대 600여명이 영천 현지에서 입주식을 거행하고 입촌을 하여 마을이 설촌되었다.

당시 개척단 이사장에는 ‘백원정’ 장노가 선임되었고 이 지역 307정보의 국유지를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임대계약(농산 제 153호)을 받고 허허벌판 황무지를 개간 농경지로 바꿔 놓았다.

또한 본 법호촌에 입촌한 지역별 인구구성 비율을 보면 이북출신이 40%, 이남출신이 20%(육지부), 제주출신이 40%의 비율로 전국 각지에서 고루 입주 하였다.

그리고 이곳에 입주한 분들의 성씨를 보면 金, 李, 朴, 崔, 鄭, 高, 康, 姜, 玄, 許, 河, 張, 夫, 白, 韓, 吳, 文, 尹, 權, 梁, 車, 漢, 申, 禹, 徐, 田, 安, 任, 裴, 趙, 蘇, 琴氏 등 타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희귀 성씨들을 엿 볼 수가 있다.

본 마을은 설촌시에 상.하동으로 분산을 하여 입촌을 하였으며 상동 속칭 ‘양근리’에 40세대, 하동 속칭 ‘영천’에 96세대가 입주를 하였고 입석(선돌)마을은 법호촌 마을 설촌후 상.하동에서 5,6세대가 이주를 하여 마을이 형성되었다.

설촌시에 본 마을의 속명은 ‘영천마을’ 또는 ‘가나안새마을’이라고 하였으나 난민 귀농정착 개척단이 사단법인으로 인가가 되면서 속명을 ‘법호촌(法護村 : 제주도 사법 보호위원회의 후원으로 이룩된 마을이라는 뜻)으로 개명하였다.

20) 우리고장의 설촌유래(1986. 2. 25) 서귀포시교육청 P. 12 : 1~10

설촌시에 본 마을의 법정 지명은 '남제주군 서귀면 상호리'였으며 1956년 7월 1일 서귀면이 '서귀읍'으로 승격되면서 상호리는 1.2.3리로 분리가 되어 1리는 '서상호마을' 2리는 '동상호마을' 본 마을 3리는 '상호3리'가 되었다.

1981년 7월 1일 서귀읍이 중문면과 통합하여 '서귀포시'로 승격되면서 상호 1.2.3리는 '상호동'으로 통합되었고 상호동은 토평동과 함께 영천동에 속하게 되었다.

1963년 10월 11일에 개통을 한 5.16도로(제1횡단도로)가 본리 중심부를 관통함에 따라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왕래하는 수많은 차량들로 인하여 소음과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어 아쉬운 점은 있으나 교통부 공고 제 98호로 천혜의 아름다운 돈내코 지역을 '국민관광단지'로 지정 개발하여 여름철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돈내코 지역을 찾아 여가를 즐기는 모습에서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법호촌은 설촌의 역사가 짧지만 주변에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제주학생수련원', '산림청 육종연구소' 등이 있어 교육과 연구단지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는 살기좋은 마을로서 역사적으로 '영천관(官設 客館)'과 '영천사'가 있었다는 내용이 '탐라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말을 사육하는 산마구소장(山馬九所場)이 있어 말 사육을 감독하는 '점마처'라는 관서가 있었고 점마절제사가 상시 주재하여 있었다고 하는 역사성도 갖고 있는 지역이다.

역사는 세월에 따라 번영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며 이에 따른 흥망성쇠는 역사변천의 순리로서 비록 조선 시대의 '영천관'과 '영천사' 그리고 직사 점마소의 역사적 흔적은 사라졌다 하더라도 오늘을 사는 우리들로서는 그 당시의 역사적 사실만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과거를 통해 오늘을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이자 내일을 향해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본 법호촌 마을은 역사적으로도 유서가 깊은 곳이며 교통의 요지로서 주변환경이 매우 아름답고 전략상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우리고장의 설촌유래(1986. 2. 25) 서귀포시교육청

서귀포시지명유래집(1999. 4. 28) 서귀포시
 서귀포시지(2001. 7. 1) 서귀포시
 영천교 32년사(2002. 2. 16) 영천초등학교

7. 서홍동

법률 제 3425호에 의해 서귀읍 일원과 중문면을 통합하여 서귀포시를 설치할 때 이루어진 12개동의 하나로 옛 서홍리에서 천지동에 포함된 지역(남성리)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가. 서홍동의 설촌유래

서홍동은 산남지방의 동서 중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로서 남쪽으로는 서귀포 시내와 경계길을 사이에 두고 천지동과 주거지가 마주되어 있고 동쪽은 동홍동과 인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2.2km 떨어진 호근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고 옛 이름은 '홍로(烘爐)'이다.

지명을 구성하고 있는 한자를 풀이 해보면 홑불烘(홍)과 화로爐(로)의 두 글자로 되어 있으며 아래 글자의 뜻을 들어서 이 지역 형세가 화로의 형국임을 풍수상의 이치로 본 지명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형체에 의한 풀이 보다 불꽃이 일고 있는 형상을 火氣(화기)가 센 지역임을 가르키는 관념상의 형세로 볼 수도 있다.

마을 앞 흙담에 뚝을 쌓아 물이 고이게 하고 소나무를 심어서 마을안의 화기를 누른 내력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서흥동의 한자 표기는 홍로(洪爐, 烘爐), 서홍로(西烘爐), 서흥(西烘)으로 나타난다.

지금 서흥리가 원래 ‘홍로’의 중심지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후에 마을이 커지면서 ‘홍로’의 서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데서 ‘서홍로, 서흥’이라 하였다.

『삼군호구가간총책』(정의군, 우면)에 “서홍로의 연가는 94호이다. 남자 200명과 여자 204명을 합하여 404명이고 초가는 300칸이다.”²¹⁾ 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서흥동은 홍로, 서홍로, 서홍로리, 서홍로마을, 서흥리, 서흥마을 서흥동의 과정으로 마을 이름의 한자 표기가 변하여 왔다.

‘홍로’ 지명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 o. 홍 로 : 고려 예종년대(1106 ~ 1129) 촌락형성
- o. 홍로현촌 : 고려 충렬왕 26년(1300) 현촌 설치
- o. 홍 로 리 : 조선 태종 16년(1416) 정의현 신설로 현청 이설
- o. 홍 로 리 : 조선 광해군 1년(1609) 방리 설정시 행정구역 개편으로 동홍로리와 서홍로리의 2개로 분리 서홍로리는 정의현 우면에 속하고 1700년대 중엽에 면소(面所)가 두어졌다.
- o. 홍 리 : 조선 고종 32년(1895) 행정개신으로 동.서홍로리가 ‘동홍리’, ‘서흥리’로 분리되며 홍로의 지명이 780여년만에 없어졌다.
- o. 서 흥 리 : 1960년대 초까지 지역명으로 사용하다가 1966년 서흥리에서 ‘서흥1리’와 ‘서흥2리(남성리)’로 분리 하였다.
- o. 서 흥 동 : 1981년 7월 1일 서귀읍이 중문면과 통합하여 서귀포시로 승격되면서 ‘서흥2리(남성리)’를 천지동으로 편입하고 지금의 서흥동이 되었다.

21) 삼군호구가간총책(정의군, 우면)에 “西烘, 烟家 九十四戶, 男 二百口 女 二百四口, 合 四百四口, 草家 三百間”

문헌상에 홍로가 처음 마을로 기록이 된 것은 고려 충렬왕 26년(1300)에 제주도를 동·서 양도로 나누고 14개의 현을 둘때에 지금의 서귀포시 관내에는 ‘홍로’와 ‘예래’ 2개의 현을 두었다.²²⁾

이로 보아 홍로에는 관가가 개설 됐을 것으로 추정되며 역사의 유적들로는 홍로현의 관아가 있었던 자리로 추정되는 ‘대궐터’, 화살의 과녁으로 술대가 세워져 있던 받을 일컫는 ‘술대왓’, ‘향교’가 자리했던 곳으로 불리는 ‘향교가름’ 예전 관아 건물을 지을 적에 쓰였던 기와를 만들었던 받이라 추정되는 ‘외왓’ 등이 이를 입증한다고 하겠다.

그 후 조선 태종 16년(1416)에 동·서 양도를 없애고 산남지방을 정의, 대정의 2현으로 개편되면서 홍로는 정의현에 속하고 현청은 새로운 정의현이 된 고성으로 이설되어 갔다.

이러한 문헌상의 기록보다 앞서서 전래되어 오는 홍로의 ‘지장샘 설화’에는 고려 예종 2년(1107)에 송나라 술사 ‘호종단’이 지장샘에 와서 한 농부의 지혜로서 지장샘의 물혈을 끊는데 실패하여 돌아갔다는 전설이 오래 구전되고 있어 홍로의 설촌이 문헌기록보다 200여년 앞서고 있음을 보게 된다.

또 한가지 설촌 유래에 대한 추측은 홍로라는 마을의 한자 이름이 있기 전에 순수한 마을의 옛 이름이 있었을 텐데 그 이전 이름이 없이 어려운 한자 지명 한가지만을 사용되고 있는 것이 유다르다.

우리의 지명에 두 글자의 한자 음절로 표기하게 된 것은 신라 경덕왕 16년(757)에 군(郡), 현(縣) 이상 지역명에 한하여 실시되었는데 홍로가 옛 지명이 없이 군, 현에 해당되는 한자 지명을 설촌때부터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 주거지 취락규모가 컸으며 따라서 일찍이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어찌됐건 설촌연대가 밝혀진 문헌이나 기록이 없어 단지 구전으로 내려오고 추측에 의한 짐작이기 때문에 최초 문헌에 기록된 고려 충렬왕 26년(1300)을

22) 탐라지(이원진, 1651) “...二十六年 庚子 設東西道縣 縣村 卽 貴日, 高內 涯月, 郭支, 歸德, 明月, 新村, 咸德, 金寧, 狐村, 洪爐, 猊來, 山房, 遮歸 等地也.....”

홍로마을의 설촌 시기로 보여진다.

본 서흥동의 각 성씨별 입향에 대하여 알아보기란 여긴 힘든일이 아니다.

본동 설촌이 趙氏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나 그 흔적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고 조선 초기부터 중기까지 남아 있는 문헌 등도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산야의 고비, 혹은 족보 등을 고찰하여도 어떤 성씨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다. 모두가 약 300년전 이후의 역사적 자료들 뿐이다.

어쨌든 1600년대부터 高氏, 邊氏, 玄氏 등이 주축을 이루면서 마을을 형성하여 왔으리라 여겨진다.

본 지역에서 옛 문헌 발굴은 1700년대의 '토지매매문서' 이외에 성씨를 알 수 있는 것은 1908년(융희 2)의 본동 호구조사 책자(김기호 作)가 전부인바 한일합방 이전의 성씨분포는 高, 邊, 玄, 金, 許, 姜, 康, 文, 吳, 林, 韓, 梁, 趙, 安, 元氏 등이다.

이들 성씨가 어떤 연유로 본 마을에 들어 왔는지는 후손들의 일방적 이야기 외에는 객관적 고찰이 대단히 어렵지만 대개는 당시의 시대적 변혁 즉 관리들의 가렴주구(苛斂誅求)와 천재지변에 의한 연이은 흉년 등에 의하여 살고 있던 정든 고향을 떠나 본 동으로 입향하여 가문의 기틀을 마련하였는가 하면 어떤 집안은 일이 있어 본 동에 머무르다 이 지역 토착 집안의 사위로 아예 눌러 산 경우가 여러 성씨에서 볼 수 있었다.

그 실례로 光山金氏 입향조 김최결(金最傑)공은 '구좌 한동리'에서 본 동 체주 고씨 고봉의(高鳳儀)공의 사위로 입향 하였으며 延州玄氏 현인숙家는 원주변씨의 사위로 남평문씨 역시 입향후 원주변씨의 사위가 됨으로서 이 지역 토착 세력들과의 유대관계를 맺고자 하였다.

또한 군위오씨 오태언家와 현재호家는 인근부락인 '굴왓'에서 입향아닌 입향을 했던 사례들이다.

1703년(숙종 29) '이형상 목사' 시절의 「탐라순역도」에는 '구서귀'로 기록되는 등 1,590년 서귀진(西歸鎭)이 옮겨가지 이전까지 서귀진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홍로라는 지명은 역사적 지명임을 다시한번 일깨워 주고 있다고 하겠다.

1901년 하논 지역에서 서홍동 마을 안으로 서홍동 복자 수도원이 이전되어 그 안에서 근무하던 '엄타기' 신부가 1911년 제주자생 왕벚나무 몇 그루를 일본에 있는 친구에게 보내준 답례로 미장온주 14그루를 기증받아 시험재배 하게 된 것이 제주 온주밀감이 시초이며 현재까지도 현 천주교 복자성당 앞 마당에 당시 나무중 1그루가 남아 있어 감귤 수확을 하고 있다.

또한 마을앞이 허하다 하여 1910년 당시 이장이던 고진사(高進士)가 주민을 동원하여 흙담(土城)을 수축하고 주위에 소나무를 심어 이제는 지역의 보호수로 지정되어 서귀포의 명물로 꼽히고 있으며 이처럼 서홍동은 옛 선인들의 맥박과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마을이다.

※참고문헌. 우리고장의 설촌유래(1986. 2. 25) 서귀포시교육청
서홍동 마을지(1996. 12. 15) 서홍동마을회
서귀포시지명유래집(1999. 4. 28) 서귀포시
서귀포시지(2001. 7. 1) 서귀포시

8. 동홍동

법률 제 3425호에 의해 서귀읍 일원과 중문면을 통합하여 서귀포시를 설치할 때 이루어진 12개동의 하나로 행정구역상 송산동 구역을 제외한 옛 동홍리를 말한다.



가. 동홍동의 설촌유래

동홍동은 산남지방의 동서 중간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동쪽은 영천동, 서쪽은 서홍동, 남쪽은 중앙동, 정방동, 송산동과 경계를 접한 마을로서 옛 이름은 ‘홍로’, ‘동홍로’, 또는 ‘홍리’, ‘동홍리’인데 이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 홍로(洪爐. 烘爐), 동홍로(東烘爐), 동홍(東烘)이다.

『삼군호구가간총책』(정의군, 우면)에 “동홍로마을의 연가는 105호이다. 남자 273명과 여자 286명을 합하여 559명이고 초가는 332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²³⁾

동홍동은 홍로의 동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데서 ‘동홍로, 동홍로리, 동홍로마을, 동홍리, 동홍마을, 동홍동’으로 마을 이름의 한자 표기가 변하였다.

23) 삼군호구가간총책(정의군, 우면)

“東烘, 烟家 一百五戶 男 二百七十三口 女 二百八十六口 合 五百五十九口 草家 三百三十二間”

그러면 언제 마을이 설촌되었는냐 하는 것은 기록이 없어 알 수가 없으나 다음 사실로 보아 추정할 뿐이다.

문헌상에는 서기 1300년(충렬왕 26) 제주에 14개 현촌을 설치하였는데 그 14개 현촌중 서귀포시 관내에는 ‘홍로현’과 ‘예래현’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옥하골’ ‘관전’ 등이 구전으로 전해오는 것으로 보아 오래전에 촌락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으나 그에 따른 현촌의 모습과 생활상 등 유물과 유적을 찾을 수가 없어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동홍마을이 형성되었는지는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겠다.

그러나 족보나 호구단자 등 자료로 고증이 가능한 것은 지금부터 약 450년전인 조선 중기 1560년경 ‘갓목’ 가까이 있는 ‘큰집터(이 일대를 옷가름이라고도 함)’ 일대에 光山金氏와 晉州姜氏 淸州鄭氏가 들어와 살면서 설촌이 되었다고 하고 그후 제주 고헌종공(高學宗公 : 고승기(高升琪)의 11대조로 1,650년경 상호동에서 입향하여 현 동홍동 1,106번지인 큰 ‘머들왓’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많은 후손들을 두셨는데 현재 13대에 이르고 있음)²⁴⁾

등이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커졌다고 하는데 이들은 ‘산지물’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이며 나중에 ‘굴왓’에 제주부씨(濟州夫氏)가 들어와 살고 ‘폭남밭’ 일대에도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동홍동 1754, 1755번지 일대를 ‘가시머리 물’을 근원으로 하는 물골로를 ‘옥하골’이라고 하는데 주변에 ‘옥(감옥)’이 있었다 하여 부르는 말이라고 한다.

또한 그 옆에 ‘관전(官田)’이라 부르는 밭이 있는데 즉 ‘관가’였던 곳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근처에 ‘서귀진’이 있었다는 문헌이 있으나 그 위치를 못 찾고 있으며 동홍동 1200번지에는 1882년(임오)에 ‘홍로면사무소’가 있었다고 하는데 1916년에 서귀포로 이설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옥화골’ ‘관전’ 등 홍로현청 당시부터 전해오는 구전이 사실일 경우에는 설촌의 역사도 조선초기로 올라 갈 수 있지 않나 생각되지만 당시 현촌의 모습을 나타내는 기록과 유적 유물 등을 발견할 수가 없어 역사 고증의 한계를

24) 고씨대동보 영곡공파 편(1997. 5)

절실히 느끼며 역사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한다.

그후 군위오씨(軍威吳氏), 제주양씨(濟州梁氏), 김해김씨(金海金氏), 연주현씨(延州玄氏), 경주김씨(慶州金氏), 평택림씨(平澤林氏) 등 여러 성씨들이 1700년대에서 1800년대에 본 동흥동에 입향하여 마을이 커졌다고 한다.

특히 현재 동흥 2통(갓목안)을 중심으로 군위오씨가 집성촌을 이루면서 살았고 제주부씨(濟州夫氏) 등이 굴왓(굴전동)에 터전을 마련하면서 두 개의 작은 마을이 동흥마을을 형성하여 살아왔다고 한다.

이렇게 동성촌(同姓村)을 형성하여 살게 된 것은 혈족 의식이나 선묘수호 제사를 모시는 유교문화와 선조의 후광으로 세도도 부릴 수 있고 문중자산을 공동관리하는 등 협동작업을 하기에 편리한 점들이 일문족들을 한 곳으로 모여 살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1609년(광해군 1)에 동.서 방리를 설치할 때 본동은 동.서 양리로 분리되어 '동흥로리'로 부르다가 1895년(고종 32)에는 '동흥리'로 부르게 되었으며 1899년(고종 36)에 제작된 '제주군읍지 제주도지도'에서도 '동흥리'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오랫동안 '동흥리'로 부르다가 1981년 서귀읍이 '서귀포시'로 승격되면서 '동흥동'으로 명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48년 4.3사건으로 방어 능력이 없는 중산간 마을에 소개령이 발표됨에 따라 동흥마을 주민들은 1년여 동안 해안마을 및 이웃마을로 이주할 때 옛 자료들이 소실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

1981년 7월 1일 서귀포시 승격당시 4,600여명에 불과한 동흥동의 인구가 20여년이 지난 2000년에는 16,000여명으로 증가했으며 개청당시 3개통 24개반으로 출발한 행정구역이 11개통 113개반으로 늘어났다.

도시기반 확충과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이 진행되고 기존 자연부락외로 주공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건설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유입되기 시작하여 2009년 6월 30일 현재 인구수가 남 10,041명, 여 10,368명 계 20,409명으로 인구 2만을 돌파하였고 통수도 11개통에 124개반 가구수도 7,253가구로 서귀포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동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 가능성

이 있는 동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서귀포시지명유래집(1999. 4. 28) 서귀포시
서귀포시지(2001. 7. 1) 서귀포시
동홍마을지(2003. 10) 동홍동마을회
고씨대동보 영곡공과 편(1997. 5) 고씨대동보편찬위원회

9. 대륜동

법률 제 3425호에 의해 서귀읍 일원과 중문면을 통합하여 서귀포시를 설치할 때 이루어진 12개동의 하나로 법환동(옛 법환리)과 서호동(옛 서호리), 호근동(옛 호근리), 새서귀포를 통합하여 만든 동이다.



가. 법환동의 설촌유래

법환마을은 한라산을 기준할 때 정남쪽에 위치하며 서귀포 신시가지 일부를 포함 일주도로 남쪽 바다까지로 동으로는 속칭 남해를 기점으로 호근동 해안과 경계를 접하고 서쪽으로는 속칭 두머니물까지 그 경계가 되고 있는 한국 최남단의 위치한 해안촌(海岸村) 마을이다.

법환동에는 해안가 여러곳에 용천수가 솟아나 상수도가 보급되기 이전에는 수백년동안 생활용수로 이용하여 옛부터 물 좋고 인심 또한 후해서 사람이 살기좋은 가장 천혜(天惠)받은 마을로 알려져 왔다.

이러한 법환동의 옛 이름은 '법환이(법환잇개), 법한이(법환잇개)인데 이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 법환(法還-浦), 법한(法汗-浦)이다.

『삼군호구가간총책』
(정의군, 우면)에 “법환
의 연가는 317호이다.
남자 601명과 여자 731
명을 합하여 1,332명이
고 초가는 782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²⁵⁾



法還은 ‘법환’의 음가
자 표기이고 포(浦)는
‘개’의 훈독자 표기이며

법환포(法還浦)는 ‘법환잇개’의 한자 차용 표기이다.

옛부터 촌락이 형성되는 데에는 지형과 지세가 좋고 식수 기후 농경지 등 생활조건이 좋은 곳을 택했으리라 추측되는데 법환마을의 시원은 용천수와 함께 고인돌과 유물산포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때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나 이를 확인할 길은 없고 이후 고려말(14세기 말) 목호의 난때 최영장군이 이끄는 고려군인들이 범섬으로 도망쳐간 원나라 목호들의 잔당들을 토벌하기 위해 본 마을에 도착하여 잠시 유숙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법환에는 소규모이나 주민들이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으나 마을 형성의 시작은 법환포(法還浦)라는 지명이 최초로 등장한 조선왕조실록(중종실록 1510) 초까지 소급할 수 있다. 라고 법환 문화. 역사마을 가꾸기 고증사업 보고서에는 기록하고 있다.²⁶⁾

법환에는 ‘막숙물’을 비롯하여 ‘동카름물’, ‘서카름물’, ‘공물’ 등 물이 가장 풍부한 고장으로 일찍부터 사람이 살았을 것으로 추측되나 언제부터 마을이 형성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서기 1300년(충렬왕 26)에 제주도를 동.서도로 나누고 14개 현촌을 설치하였는데 그 14개 현촌중 서귀포시 관내에는 홍로와 예래의 2개의 현촌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²⁷⁾

25) 삼군호구가간총책(정의군, 우면)

“法還, 烟家 三百十七戶, 男 六百一口 女 七百三十一口, 合 一千三百三十二口, 草家 七百八十二間”

26) 법환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고증사업 보고서(2006. 12) 제주대학교 P. 16 : 26~P. 17 : 4

당시 현촌의 모습과 생활상 등 규모를 알만한 기록은 없으나 법환리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나 하는 의문점은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600여년전 서기 1374년(고려 공민왕 23) 목호의 난 당시 범섬으로 도망쳐 온 목호 잔당들을 최영장군이 소탕한 마지막 격전지였던 역사의 현장으로 그 당시 군사에 관련된 지명(막숙, 군자왓, 병디왓, 배연줄이 등) 유래가 구전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오는 것으로 봐서 당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나 하는 가정이 추정되지만 이에 따른 후손이나 유물 등 그 어떤 흔적도 확인할 길이 없어 아쉽기만 하다.

법환리에 설촌의 역사를 알려주는 구전과 전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약 1540년경이다.

첫째. 법환에 최초로 입향한 사람은 연주 현씨 봉수(鳳守)공이다.

봉수공의 선친이신 휘 온세(溫世)공께서 1510년경 남원읍 수망리에서 현 ‘하논’경으로 이주하여 서원을 열어 인근 주민들에게 학문을 가르쳐 칭송이 자자했다는 기록이 연주현씨 세보에 기록되어 있으며 온세공의 4남이신 봉수(鳳守)공께서 1540년경 농토가 비옥하고 맑은 생수가 넘쳐 흐르고 풍광이 매우 아름다운 해안지역인 법환리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주하였다는 연주현씨 족보의 기록과 봉수공의 묘도 법환과 강정경계 지역인 효제동산에 있으며 아들 (장남 승관, 차남 승홍) 형제를 두었는데 이들 모두 법환동에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별세하여 묘도 모두 종심당(좁당)에 있어 매년 4월이면 이곳 효제동산과 좁당에서 시제를 올리고 있다는 사실과 공의 후손들이 460여년이 지난 오늘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법환동에 대대로 살아오고 있는 사실을 볼 때 구전과 어느정도 상통하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 이때부터 본동에 설촌(設村)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둘째. 수모르 서남쪽 큰가름(광대왓)에 연주현씨가 정착하여 살던중 한씨, 허씨가 같이 들어와 살면서 玄氏, 韓氏, 許氏가 마을형성의 3주체가 되어 서로 의 형제를 맺어 거주하다가 언제 어떤 이유로 어떻게 해서 서로 헤어지게 되었는데

27) 탐라지(이원진. 1653) “二十六年 庚子 設東西道縣 縣村 卽 貴日, 高內, 涯月, 郭支, 歸德, 明月, 新村, 咸德, 金寧, 狐村, 烘爐, 猊來, 山房, 遮歸, 等地也.....“

지는 모르지만 현씨는 지금의 법환리로 許氏는 서호동으로 韓氏는 통물을 거쳐 보목동으로 이주하여 오늘에 이른다고 하는데 언제 정착하였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 알 수가 없으나 1500년 중반경에 설촌이 되지 않았나 추정된다.

셋째. 1610년경 谷山康氏 효길(效吉)공인 난산리에서 입향하였고 1649년 原州邊氏이신 득한(得漢)공이 입향하였으며 1694년경에 곡산강씨 農軒公派인 樹(수)공께서 입향하였고 1670년경에는 軍威吳氏이신 태숙(泰肅)공이 동흥동에서 입향하였으며 1699년경 谷山康氏 만원(萬元)공께서 온평리에서 입향하였다.

1701년경에는 慶州金氏이신 시문(時文)공께서 의귀리에서 입향하였고 1711년 경에는 信川康氏이신 취방(就邦)공께서 홍로에서 입향하였으며 1717년경에는 谷山康氏 農軒公派인 민중(敏重)공께서 표선리에서 입향하였고 1718년경에는 信川康氏이신 석완(碩完)공께서 위미리에서 입향 하는 등 1700년대와 1800년대를 거쳐 1900년대 초까지 많은 성씨들이 집중적으로 입향하고 있다.²⁸⁾

넷째. 법환마을은 현재 28개의 성씨로 구성되고 있어 각성촌이 되고 있다.

다만 곡산강씨(신천강씨 포함)가 약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강씨 집성촌으로 불리만 하다.

이처럼 곡산강씨(谷山康氏)가 타성에 비해 높은 것은 곡산강씨 집단이 1600년대와 1700년대에 시기를 달리하여 9개 마을에서 이주해온 후 이들 집단이 다른 마을에 살고 있는 친인척들을 불러 들인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섯째. 각 성씨 집단들이 법환마을로 이주해온 시기를 보면 1800년대와 1900년대가 67%를 차지하고 있다.

법환마을이 대략 1500년대에 설촌되었다고 하나 1900년대 들어와 이주민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법환동을 구성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의 성씨를 보면 곡산강씨(谷山康氏), 신천강씨(信川康氏), 제주고씨(濟州高氏), 곡부공씨(曲阜孔氏), 안동권씨(安東權氏), 경주김씨(慶州金氏), 광산김씨(光山金氏), 상산김씨(商山金氏), 김해김씨(金海金氏), 남평문씨(南平文氏), 밀양박씨(密陽朴氏), 원주변씨(原州邊氏), 거창신씨(居昌愼氏), 평산신씨(平山申氏), 고령신씨(高靈申氏), 순흥안씨(順興安

28) 법환향토지(2000. 2. 20“성씨별 입향상황”

氏), 제주양씨(濟州梁氏), 군위오씨(軍威吳氏), 기계유씨(杞溪俞氏), 문화유씨(文化柳氏), 경주이씨(慶州李氏), 고성이씨(固城李氏), 고부이씨(古阜李氏), 원주이씨(原州李氏), 전주이씨(全州李氏), 안동장씨(安東張氏), 천안전씨(天安全氏), 동래정씨(東萊鄭氏), 한양조씨(漢陽趙氏), 함안조씨(咸安趙氏), 상주주씨(尙州周氏), 여양진씨(驪陽陳氏), 청주한씨(淸州韓氏), 양천허씨(陽川許氏), 연주현씨(延州玄氏) 등이다.

그 후 여러 성씨들이 모여들어 대마을로 형성된 법환동은 특히 동족씨족 강씨들이 타성씨들 보다는 훨씬 많은 수를 가져 동족취락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나 현대는 시대의 변천과 사회구조의 다변화에 따라 여러 성씨들이 혼합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농업과 어업을 주로 하여 생활해 가고 있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고 있는 살기 좋은 마을이다.

※참고문헌. 서귀포시지명유래집(1999. 4. 28) 서귀포시

법환향토지(2000. 2. 20) 법환동마을회

서귀포시지(2001. 7. 1) 서귀포시

법환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고증사업 보고서(2006. 12). 제주대학교

제주혁신도시 사이버 고향마을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보고서

(2009. 6) 제주문화유산연구원

나. 호근동의 설촌유래

호근동은 서귀포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사이에 있는 중산간 마을로서 서귀포 중심에서 마을회관까지 직선거리로 약 3.1km 정도 떨어져 위치해 있고 동쪽으로는 서흥동과 서쪽으로는 서호동과 인접하여 경계를 이루면서 인가가 마주 접하여 같은 생활권에서 살아가고 있다.

남쪽으로는 법환동과 경계를 이루고 북쪽으로는 한라산 자락이 마주하고 있는 마을인데 호근동의 옛 이름은 ‘호근머들(好斤磊. 好近磊), 호근머흘’이고 서호동의 옛 이름은 ‘구호근리(舊好近里), 서호근리(西好近里)이다.

『삼군호구가간총책』(정의군, 우면)에 “호근머들의 연가는 267호이다. 남자 566명과 여자 584명을 합하여 1,150명이고 초가는 1,053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²⁹⁾



호근뇌(好斤磊)와 호근뇌(好近磊)는 ‘호근

머들’의 한자 차용 표기이고 好近은 ‘호근’의 음가자 표기이며 뇌(磊)는 ‘돌무더기’를 뜻하는 제주도 방언 ‘머들’ 또는 ‘머홀’의 훈독자 표기이다.

‘호근록’(好近錄 : 1927년 許垠 훈장이 기록한 향토사)에 본리를 ‘好近’이라 이름한 것은 <虎>자가 변하여 <好>자가 된 것이다.

마을 서남쪽에 대광원(큰가름)이 있으니 옛날 선인의 거주지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호근록’에는 지금 서호동 622번지 ‘허인보’씨의 집 자리(과거 허민씨집)에 고려말 정당문학까지 지낸 전북 남원의 조원(趙元)이란 사람이 국세가 위급함을 보고 바다를 건너와 조선조 개국 3년(1394. 갑술)에 여기에 터를 잡았으며 그 후 8세손 앵보, 앵진 대에 이르러 망하니 양천허씨가 장가들어 그 터에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고려말부터 조선초까지 입도한 유명 인사들을 상당수에 달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조원(趙元)이란 분은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 신빙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³⁰⁾

그리고 ‘호근록’을 쓴 허은훈장도 이를 입증할만한 문헌 기록은 못 찾은 듯 ‘본리’가 趙, 韓氏에 의해 설촌되었다고 하나 무엇을 증거로 믿겠는가? 한 것으로 보아 이 또한 추정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호근동에 언제 설촌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확실히 알 수가 없지만 수모루 서남쪽 ‘큰가름’과 ‘통물’ 일대에 사람이 살면서 1580년경 ‘趙氏’와 ‘淸州韓氏’

29) 삼군호구가간총책(정의군, 우면) “好近, 烟家 二百六十七戶 男 五百六十六口 女 百八十四口 合 一千一百五十口 草家 一千五十三間”

30) 好近錄(1927. 許垠 訓長에 의해서 기록한 향토사)

입도조 한천(韓蕝)공의 8대손 대응(大應)께서 원통에 거주하였고 그의 아들 덕원(德元)은 호근리 1,947번지에 정착한 것으로 보아 이때에 이들에 의해서 설촌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趙氏, 韓氏 후예들은 다 흩어져 지금 본 동에는 전혀 살고 있지 않으며 韓氏 후예들은 보목동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조선시대 중반부터 ‘원통과원’이 있었고 마을 이름이 ‘호근머들’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지금의 마을중심지인 ‘검은머들’ 일대에 사람들이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趙氏 후예는 8세를 거쳐 앵보(鶯寶), 앵진(鶯珍) 형제대에 이르러 동생 앵진은 외지로 나가고 형 앵보는 후손이 없어 절손하게 되었는데 상천리(上川里)에서 양천허씨 철(哲)이란 분이 서기 1624년경에 조앵보(趙鶯寶)집에 장가들어 그 터에 살면서 아들 3형제를 낳아 장과, 중과, 말과로 갈렸으며 현재 11대에 이르러 서호동의 2대 성씨로 호근동의 3대 성씨로 번성하여 유명인사도 많이 배출하였다.

韓氏 후예는 8세 덕원(德元)대에 난산리에서 군위오씨의 상흥(尙興)公이 1646년 한덕원(韓德元)家에 장가들어 그 터에 살면서 많은 후손들을 두셨는데 13대에 이르고 있으며 호근동의 2대 성씨로 자리잡고 있다.

이로써 호근마을을 설촌한 趙氏는 9대에 망하고 韓氏는 8세에 외지로 나간 셈이다.

1665년경에는 연주현씨(延州玄氏) 덕민(德敏)公이 입향하였고 후손들은 장, 중, 말 3과로 갈렸으며 또한 玄氏(새왓집)가지의 용은(隆殷)公도 1760년 허씨집에 장가들면서 수망리에서 입향하였다.

1680년경 경주김씨(慶州金氏) 완(完)公이 신희리에서 입향하였고 다른 가지인 덕유(德裕)공이 의귀리에서 입향한 것은 1765년경이었다.

1683년경에는 신천강씨(信川康氏) 후건(厚健)公이 수산리에서 모친 여산송씨와 함께 호근리에 입향하여 군위오씨와 결혼 만수, 만완, 만득 3형제를 낳았는데 만완은 법환리로 만득은 강정리로 이주하였고 장과의 후손들만이 본 동에 남아 살고 있다.

1685년경에는 광산김씨(光山金氏) 여택(汝澤)公이 신산리에서 입향하였고 해성(海成)公이 신례리에서 한씨집에 장가들어 입향하였으며 이후 같은 김씨 응

헌(應獻)公은 1715년 토산리에서 들어와 허안(許岸)公의 딸과 결혼하여 자손이 번성하고 있다.

1722년경에 제주고씨(濟州高氏) 중강(重崗)公이 효돈에서 양천 허성(許晟)公의 사위로 들어와 정착하여 10대에 이르고 있고 봉림(鳳林)公 또한 1811년에 의귀리에서 양천 허씨집의 사위로 들어와 정착하였으며 다른 가지인 여락공은 1860년경 제주시 일도리에서 입향하였다.

1760년경에 동래정씨(東萊鄭氏) 성교(聖僑)公이 금악리에서 오정한의 딸과 결혼하면서 입향하여 9대에 이르고 있고 같은 성씨 유태(維泰)公은 1750년 토평리에서 입향하였다.

1786년경에는 군위오씨(軍威吳氏) 입도시조의 16세인 광보(光輔)公이 효돈으로부터 입향하여 후손들이 8대에 이르며 현재 서호동의 3대 성씨가 되고 있다.

1787년경에 연주현씨 광부(光富)公이 의귀리에서 광산 김윤욱(金允旭)公의 사위로 입향하였고 1800년에도 연주현씨 이현(以現)公이 수망리에서 입향하였다.

이와같은 성씨의 입향은 1800년대에서 1900년대초 까지 계속되어서 1860년에는 진주강씨(晉州姜氏) 종철(宗哲)公이 용수리에서 입향하였고 밀양박씨(密陽朴氏)도 입향하였다.

1864년에는 진주강씨 룡황(瓏璜)公이 창천리에서 입향하였고 1872년경에는 진주진씨(晉州秦氏), 1890년경에는 인동장씨(仁同張氏), 1895년경에는 남양홍씨(南陽洪氏)가 구좌읍 하도리에서 입향하였으며 1909년경에는 김해김씨(金海金氏), 전주이씨(全州李氏)가 입향하였다.

여러 성씨들의 입향중 특이한 것은 광주김씨(光州金氏) ‘윤옥’의 경우로 그는 평안남도 강동군 출신인데 6.25때 피난민으로 와서 남양홍씨가에 장가들어 이 마을에 정착하여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더불어 1900년대에 들어온 성씨는 진주유씨(晉州柳氏. 1964), 경주이씨(慶州李氏. 1966), 파평윤씨(坡平尹氏. 1966), 보성오씨(寶城吳氏. 1973), 풍천임씨(豐川任氏), 이천서씨(利川徐氏) 등이다.

이렇듯 인구가 증가하고 마을의 세력이 확장되면서 흩어지고 다시 모이고 성씨간 혹은 개인간에 질서와 다툼도 있었다.

1892년 4월에 마을 주민 사이의 반목으로 신호근리>신호리(새호근마을. 현

호근동 일부) 구호근리>서호근리(묵은 호근마을. 현 호근동 일부와 서호동)으로 나뉘어져 분리(分里)가 이루어졌다.

분리후 8년만인 1900년경(경자년)에 ‘허환’의 노력으로 마을을 다시 합쳐지지만 1903년(광부 7) 4월 16일에 ‘허환’, ‘허은’의 종족간 치욕사건으로 다시 나뉘게 되니 동쪽마을은 호근리(好近里) 서쪽마을은 서호리(西好里)라 하여 분리 되었으며 1913년 오늘날의 경계대로 다시 分里 되었다.

1981년 7월 1일 서귀읍이 중문면과 통합하여 서귀포시로 승격되면서 법정동인 ‘호근동’이 되었고 동시에 행정동의 조정과정에서 서호동 및 법환동과 함께 대륜동에 속하게 되었다.

- ※참고문헌. 호근리의 어제와 오늘(1999. 12) 호근동마을회
 호근리리 근원을 찾아(濟農 金永禧. 1993. 3. 19)
 서귀포시지명유래집(1999. 4. 28) 서귀포시
 서호교 50년사(2002. 12. 30) 서호초등교 총동문회
 제주혁신도시 사이버 고향마을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보고서
 (2009. 6) 제주문화유산연구원

다. 서호동의 설촌유래

서호동은 서귀포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사이에 있는 중산간 마을로서 서귀포 중심에서 서북쪽 4km 어간에 위치해 있고 동쪽으로는 호근동 서쪽으로는 혁신도시와 강정동과 영남동 남쪽으로는 법환동 북쪽으로는 한라산 자락이 마주하고 있



다.

서호동은 19C말 호근리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성장한 마을로서 호근리의 서쪽에 형성된 마을이라는 의미에서 ‘서호리’라 하였고 그 이후 호근리와의 재병합 혹은 일부 구역의 재조정 등을 거쳐 ‘서호리’로 정착하게 되었다.

서호동의 옛 이름은 ‘구호근리(舊好近里), 서호근리(西好近里)(오창명. 2007. P. 804~805)이다.

『호근록』(1927. 허은훈장에 의해서 기록한 향토사)에 의하면 ‘마을 서남쪽에 대광원(큰가름)이 있으니 옛날 선인의 거주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구전에 의하면 <통물>, <원통>, <고둔(염둔)> 등지에 2~3호, 5~6호씩 사람이 살았었다고 전해오는데 서호리 마을의 지번 1번지가 통물 머리에 있는 것으로 보아 마을이 통물에 근거했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서호동에 언제 설촌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확실히 알 수가 없지만 수모루 서남쪽 ‘큰가름’과 ‘통물’ 일대에 사람이 살면서 1,580년경 ‘趙氏’와 ‘韓氏’에 의해서 설촌되었다고 하나 무엇을 증거로 믿겠는가? 하고 호근록을 쓴 허은 훈장도 이를 입증할 만한 문헌 기록을 못 찾은 듯 설촌 유래에 대해서 신빙성에 의문을 갖고 있음을 호근록에서도 엿볼 수 있다.

서호동은 19세기 말 ‘호근머들. 호근머홀(好斤磊. 好近磊)’에서 분리되어 마을이 설촌되었기 때문에 설촌의 역사는 호근동의 설촌의 내력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서호 호근동이 어떻게 분리가 되었는지 그 내용을 알아보면 1,892년(고종 29) 4월에 ‘누대의 토호인 ‘허환’이 제멋대로 권리를 행사하는데 대한 반발로 김종현(金鍾鉉), 현규성(玄圭成), 오달백(吳達伯), 양명홍(梁明弘)

강사빈(康士斌)등이 마침 마을을 순시중인 察里使 李圭遠에게 등장을 올렸는데 그 결과 ‘허환’이 징계를 당하고 마을은 둘로 나뉘어 ‘신호근리(新好近里)’라 하였으며 특히 마을을 나누기 원하는 사람은 新자를 붙이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舊자를 쓰게 하였다. (호근록. 分里部)

따라서 마을은 ‘신호근리’와 ‘구호근리’로 나뉘게 되었으며 1899년(광무 3)에 『정의읍고지』(방리 .우면)에서도 ‘구호근리. 신호근리’로 구분하여 표기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1년후인 1900년(광무 4)에 ‘허환’의 노력으로 마을은 다시 합쳐지지만

1903년(광무 7)에 ‘허환’, ‘허은’간의 ‘종족간 치욕사건’으로 다시 나뉘게 되어 동쪽마을은 ‘호근리’로 서쪽마을은 ‘서호리’로 分里가 되었다.

1907년에 ‘정의군 우면 서호리’가 되었고 1913년에 토지측량시 천지지경(天地員)의 경계선이 명확하지 못하다고 하여 계곡(溪谷)을 따라 마을 경계로 삼으니 오늘날의 경계대로 다시 分里가 되었다.

1946년 8월 1일 미군정 법령 제 94호에 의거 ‘남제주군 서귀면 서호리’로 정비되었다가 1956년 서귀면이 읍으로 승격되면서 ‘남제주군 서귀읍 서호리’가 되었다.

1981년 7월 1일 서귀읍이 중문면과 통합하여 ‘서귀포시’로 승격되면서 법정동인 ‘서호동’이 되었고 동시에 행정동의 조정과정에서 호근동 및 법환동과 함께 ‘대륜동’에 속하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서호동을 구성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의 성씨를 보면 晋州姜氏, 信川康氏, 濟州高氏, 慶州金氏, 光山金氏, 金海金氏, 密陽朴氏, 濟州梁氏, 軍威吳氏, 固城李氏, 古阜李氏, 慶州李氏, 全州李氏, 仁同張氏, 晋州秦氏, 陽川許氏, 延州玄氏, 坡平尹氏 등이다.

이중 양천허씨는 서호동이 2대 성씨로 군위오씨도 서호동의 3대 성씨로 번성하여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호근뢰리 근원을 찾아(濟農. 金永禧. 1993. 3. 19)

서귀포시지(2001. 7. 1) 서귀포시

서호교 50년사(2002. 12. 30) 서귀포시

제주혁신도시 사이버 고향마을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보고서
(2009. 6.) 제주문화유산 연구원

라. 새서귀포의 설촌유래

새로운 세기에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서귀포시의 항구적인 발전과 시 승격으로 인한 시청사의 건립 시민의 안정된 주거생활 터전 개발을 위하여 1984년부터 1992년까지 신시가지 조성사업 공사가 이

루어졌는데 1989년 12월에 택지 분양이 이루어졌고 1992년 6월에 대지조성 준공이 이루어졌으며 시가지 조성 전체 준공은 1993년 1월에 완료되었다.

서귀포시의 동서를 연결하는 중심권인 고근산 바로 밑에 행정기관인 서귀포시청이 1994년 4월에 준공되었고 아파트 및 개인주택 토지분양을 통해 전국 각계 각층에서 많은 인구들이 유입되어 신시가지 마을이 설촌되었는데 10여년이 지난 오

늘 현재에는 1,100세대
에 3,500여명의 인구를
가진 전원도시로 발전하
였으나 서호, 법환, 강정
으로 분리된 행정구역으
로 인해 지번의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주
민들의 소속감도 어딘지
모르게 이질감을 나타내
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
다.



이 곳에는 서귀포시청을 비롯하여 경찰서, 초등학교, 중학교, 한국전력, 우체국, 농협, 감협, 국민보험공단, 월드컵 경기장과 이마트 등 각 기관들이 들어서서 주민들의 행정 편의와 삶의 질 향상에도 일조하고 있다.

또한 주변에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어서 2012년에 중앙 여러 개의 기관들이 들어서면 새서귀포는 몰라보게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새 서귀포는 2000년 6월 10일 주민들의 뜻을 모아 마을회를 조직하고 대륜동 관할 새서귀포마을이라 칭하였고 마을회 규약을 제정하였으며 2003년 1월 25일 마을회칙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2004년 1월 1일부로 서귀포시 통반설치 조례 규정에 의거 광역통으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6개통이 1개통으로 통합되고 행정구역상 서귀포시 대륜동 4통으로 조직 개편되었으며 마을회칙을 광역통 실정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마을 주민 총회의 의결을 거쳐 2004년 2월 28일 새서귀포 마을 규약으로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참고문헌. 새서귀포 마을회 규약